朝鮮日報
夕刊 八日(火)

對伊經濟制裁에 全聯盟國參加乎

理事會의 二個報告採擇結果

九日總會採擇確實

【쥬네브七日發電通】七日聯盟公開理事會에서 六個國委員會報告書의 贊否를 投票로 무른바 이든英代表以下 十二個國代表가 一齊히 贊成投票를하야 同報告書의 採決을 보게되엿다 이結果 英國以下 此等 十二代表國政府는 受動的으로 各各 對伊經濟的 밋財政的 制裁의 適用義務를 지게된셈인데 勿論 九日總會에서도 右報告書가 採擇될것은 明白하므로 따라 對伊制裁는 右理事國뿐만아니라 全聯盟國이 이에參加케될것이다

侵略者의 烙印찍은 報告를 一致採擇

알로이지伊代表는 留保를宣言

公開聯盟理事會經過

【쥬네브七日發電通】七日 聯盟理事會에서 六個國委員會의 報告採擇은 指名對答方法으로 諾否表示가 施行되엿는데 反對한 것은 알로이지伊代表뿐으로 다른 理事國代表는 모도 贊成하고 當事國으로서 에디오피아代表도 同意를 表示하엿다 그리하야 理事會가 二個의報告採擇을 終了하매 알로이지伊代表는 左와如한 留保宣言을 하엿다

伊太利代表는 理事會가 目下 進行하고잇는 議事手續全部에 對하야 完全한 留保를 附하는 同時에 予自身이 報告書의結論에 同意할수업는것을 表明하는바이다 그리고 本代表는 將來 右結論에 對하야 伊太利政府의 見解를 追加表明할 權限를 留保한다

右伊太利代表留保宣言에 뒤이여 게너스議長은 左와如히 伊代表에 聲明한後 閉會를宣言하엿다

戰鬪行爲는 이미 五日間에 亘하야 繼續되고잇다 伊太利代表가 如何히 希望하든가 理事會는 議事를遷延하기는 不可能하다 理事會全員은 그僚友인 伊太利代表의 便宜를爲하야 懇切한 注意를 하기를 如何히 努力하드라도 聯盟自身의 重要한 義務에對하야 異常한先例를 지으려는듯한 希望을容認할수는업는것이다

그리고 閉會에際하야 議長은 報告書發表 其他諸手續에 對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十三國委員會報告書及 六國委員會報告書全文은 理事會議事錄과함께 即時 聯盟國全部에 發送하야 對紛爭態度決定에便케함

一、聯盟國은 各自[illegible]에 依하야 來九日午後四時 聯盟總會開會까지에 態度를 決定하기를 要望함

그리고 質疑는 隨時議長에게로 申請하기를바란다

一、適當國政府의 情報入手에 便케하기爲하야 今夜(七日)쥬네브放送局으로부터 右報告書及 議事錄全部를 放送하야 米、日、獨等에對하여도 特히 右受信을 要求하야 注意를 喚起케하엿다

【쥬네브七日發聯合】聯盟理事會의 公開會議에서 六人委員會의 報告가잇슨後 六人委員會議長格 葡牙代表모레로外相이 佛國語로서 報告書의結論을 朗讀 六人委員會는 伊太利政府가 聯盟規約第十二條에 基하야 負擔하는 諸原則을 違反하고 戰爭에訴하얏다는 結論에 到達하얏다

고힘차게結論하엿다 다음게나스議長이 報告書에對하야 各國代表의 所見開陳을要請한바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은再次發言을 求하야

伊太利代表는 報告書에 關한公開討議의 延期를 要請하얏슴에 不拘하고 聯盟理事會가 右要請을全然無視한것은實로遺憾이다

伊太利代表는理事會의處置에對하야 嚴重抗議한다

고 述하얏다 다음 에디오피아代表는 六人委員會의 報告書를採決하는旨를宣言 議長以下알파벳트順으로 다시 報告書支持를 宣言하고 이로서事實上 伊太利政府는 侵略國의 汚名이찍히워 報告書는 [illegible]

總會決定기다려 即時制裁案實行

第一段에通商金融斷交主張

經濟封鎖는不斷行乎

【倫敦七日發聯合】六人委員會의 報告採擇으로 制裁案의 實現가 伊太利政府頭上에 나리게되엇는데 英國政府에서는 聯盟總會의 決定을 기다려 遲滯업시 制裁案을實行할 決意라고 解釋되는데 英國政府의 方針은 左와如하다 制裁案의 具體策으로는 第一로 伊國과의 通商及 金融斷交를 主張함 그리고 情勢에 應하야 第二段의 對策으로 올물터인데 目下 經濟封鎖를 斷行하야 戰禍를 擴大케할 意思는업다

制裁는覺悟한것 既定方針不變更

伊國政府當局의豪語

【羅馬七日發聯合】쥬네브의 形勢가 刻刻으로 惡化를傳하야 理事會는 急速 伊太利軍에 對하야 事實侵略者의 刻印을 찍고 總會는 九日에마츰내 對伊制裁를 決定하기로 되여잇는데 伊太利政府側에서도 이러한事態의 展開는 모다覺悟한바라고 豪語하고잇다 政府當局은 七日 左와如히 非公式으로 言明하얏다 伊太利政府는 事情이 全然 不得已한 境遇에 直面하지안는限 聯盟을 脫退하지는안흘것이다 聯盟理事會가 六人委員會의 報告를 採擇하야 伊太利가 聯盟規約을 違反하얏다고 裁斷한것은 實로 意外千萬이라 그러나 이것은 理事會의 認識不足을 暴露하는以外에는 아모것도 아니다 伊太利가 이때문에 旣定方針을 變更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큰誤見이다

戰鬪行爲中止를 理事會서急電

伊에兩國政府에

【쥬네브七日發電通】七日 聯盟理事會는 非公開會議에서 伊에兩國政府에 對하야 戰鬪行爲即時中止의 急電을 發키로 決定하엿다

南北實力部隊를動員 伊軍殲滅作戰

에國宮廷서重要協議

【아디스아베바八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하레·셀라시에一世는 六日夜 全閣僚及 外人顧問을宮殿에 招致하고 重要協議를 遂한結果 和平工作에 對하여는

一、即時休戰할것

一、伊太利軍의 國外撤收를 絶對條件으로 最後까지 堅持할것

을決定하엿다 同時에 南北兩戰線에亘하야 實力을 總動員하야 殲滅的으로 作戰을 決定하고 北部軍司令官라스·시윰망가사將軍及 南東司令官아라[illegible]將軍에 反擊開始를 命하엿다 皇帝는 斷行하야 伊太利軍을 殲滅할 決意라고 解釋된다 마카레 오가덴戰爭의 大會戰도 目睫間에 迫到하엿다

豫定線에退却

第二의鐵陣構築

【아디스아베바七日發聯合】에디오피아 政府는 七日午後에 이르러 아도와、아디그라트의前線으로부터 全軍을 撤收하엿다는 旨를 發表하엿다 反面하면 右撤收는 豫定作戰에 基한 軍事行動으로 아도와 南方의 山岳地帶의 天險에依據하야 第二段地를 構築하고 北軍總指揮다스세욤 망가사將軍의 指揮下에 不落의 鐵陣을 베플方針이라고傳한다

伊代表佛首相訪問 新提案文書手交

七日午後의 理事會를압두고 壽府外交界俄然緊張

【쥬네브七日發電通】七日午前十時半 알로이지伊代表가 佛國代表部로 라발佛首相을 訪問하고 伊太利政府의 新提案을 包含한文書를 手交하고 辭去하얏다 直後에 이든英代表도 佛代表部를 訪問하고 라발首相과 會見하고 무어인지 重要會談을遂하엿는데 右는알로이지伊代表가 가저온文書의 內容에 對하야 愼重審議를進行되어잇다고 觀測되고잇다 緊急理事會를 七日午後五時에 앞두고 佛伊兩代表의 會見은 當地에서 多大한注意를 끄을고잇는데 目下의 情勢로는 今日의 理事會가 伊太利에對하야 制裁規定發動을 決定할것은 不得已하다 하더라도 伊太利로서는 此際에戰鬪行爲를 停止하고 새로 和平交涉을 開始하는것이 最善의策이 아닌가 라발首相이 伊太利代表에게 友誼的勸告를 試하고잇는 事實에 비추어 알로이지伊代表의 動向은 지금 愼重을 極하야 쥬네브外交界는 再次 活氣를 뭍하려고한다

四日間投下爆彈

【아디스아베바七日發聯合】에디오피아軍當局의 七日發表에 依하면 前後四日間에亘한 伊太利空軍의 爆擊으로 投下된 爆彈은 五百個의 多數에 達하엿는데 內譯은 左와如하다

아도와方面 七十八個 곱에一帶南方戰線에 約三百個 其他目標가 틀리고또는 不發되것이 約百個 軍當局의말에依하면爆擊에依한被害는比較的勘少하다

早急輕薄!

알로이지伊代表毒舌

六國委員會의報告는

【쥬네브七日發電通】七日午後六時四十五分에 開會한 聯盟理事會公開會議에서 伊太利代表 알로이지는 左와如히 演說하엿다

六國委員會가 그報告에잇서 마치 伊太利를 聯盟規約違反者라는 早急輕薄한 斷定을 내린것은 本代表의 깁히遺憾으로녁이는바이며 따라 絶對로 이것을 否認하는바이다 伊太利가 取한行動은 伊領殖民地의 安全保障上 必要한 手段에 不過하다 相對側이 過誤에依하야 伊太利에 齎來한事態가 右行動을 不得已取하게된것이고 그以外에는 아모것도업다 다음에 伊太利代表는 十三國委員會가 作成한 勸告를包含한 報告書의 基礎諸方針을 全面的으로 排擊하는바이다 그것은 伊太利의 正當한 行動을 全然無視하엿기 때문이다 元來 에디오피아를 다른 文明聯盟國과 同一列에取扱하는것이 잘못이다 玆에列席한 如何한 代表나 에디오피아와 如이 아직도奴隷制度를 公公然히 容認하고잇는國家와 同等의 取扱을 밧기는 즐기지안흘것이다

伊軍大勝을否定한 코뮤니케發表

에디오피아政府서

【하랄七日發電通】에디오피아政府側은 各方面의 戰線에잇서서 伊太利軍이 大勝前進한다는 報道를否定하야 左와如한 코뮤니케를 七日하랄에서 發表하엿다

에디오피아軍은 南北戰線에잇서 그守備를 잘하야 伊太利軍이 飛行機、戰車、機關銃等을 使用하야 攻擊하엿스나 果敢한 에디오피아兵은 잘싸워 槍과短刀와 피스톨로 肉迫戰을 包含한 激烈한 戰鬪를 行한後 伊太利軍의 前進을 不得하엿다 그리고 아지그라트附近에서도 伊軍은 에디오피아軍을 包圍猛擊하여 왓스나 反擊되엿다 飛行機에 依한 威嚇도 에디오피아兵에게는 何等 큰恐怖의 印像을 주지못하엿고 伊軍의 勝利는 最初부터 阻止되여잇다

는 全會一致로決定이다 最後에 게나스議長은 報告書採決에 全會一致임을 宣言하고 理事會는 制度의緊急措置에 午後七時四十分散會하얏다

八日閣議決定事項

【東京電話電通】八日의 定例閣議에잇서 左와如이 決定하엿다

京城帝國大學敎授 泉哲

依願免本官

北아도와戰線

伊軍七萬五千 악숨奪取目標

에디오피아殘軍掃蕩하면서 에國聖都向해前進

【아도와七日發聯合】아도와로부터 아디그라트에 亘하야 展開된 全軍七萬五千의 伊太利軍은 六日中에 全軍의進軍態勢를 整備하고 七日새벽五時 第二段의作戰에 드러가 아도와를 發入하엿다 右翼第二軍은 執拗히 逆襲하고잇는 에디오피아軍殘兵을 掃蕩하는一方 北上악숨을 向하야 作戰으로 옮겻다

【아스마라七日發聯合】伊太利北軍右翼은 七日새벽 악숨을 向하야 前進을 開始 黑人帝國의 聖都 악숨 奪取를 開始하엿다

에軍總司令部를 粉碎할作戰

【아도와七日發聯合】伊太利軍第一軍은 七日 午前 아디그라트를 지나 南下 中央第三軍과 協力하야 一擧에 에디오피아總司令部를 攻擊하야 망가사將軍麾下의 主力을 粉碎할 作戰으로 나왓다

伊東方部隊는 鐵道遮斷決意

【아스마라七日發聯合】伊太利軍東方部隊三萬은 七日이미 무사리山을 迂廻하야 아우사州의 오아시스地帶를 專心目的으로 七日새벽 前進을 開始한 南北部隊와 呼應하야 아디스아베바鐵道를 遮斷할決意라고 解釋된다

伊軍總司令部 아도와에前進

伊軍全線聯絡完成

【아도와七日發電通】六日朝의 아도와陷落에依하야 아스마라에서 伊太利軍을 指揮하고잇던 伊太利軍總司令部는 今朝 아도와에 前進 全線을 整頓하야 아도와占에 아디그라트、엔데이시오、아도와를 聯結하는線은 完全히聯絡되게되엿다

南오가덴戰線

하랄을目標로 伊軍進軍開始

에軍은『왈왈』을根據地로 奇襲으로阻止決意

【아디스아베바七日發聯合】伊太利軍南方部隊는 코록비의淸水地帶에 集結하야 七日朝來 하랄을 指目하고 進軍을 開始하엿다 아디슬將軍麾下의 에디오피아軍은 왈왈을 根據地로한 奇襲戰法에依하야 伊太利軍의進軍을阻止할決心을 가지고잇는것이 明瞭하다

伊에兩軍의 主力對峙

一大激戰展開乎

【아스마라六日發聯合】伊太利空軍이 아도와 戰線一帶를 視察한 報告에依하면 에디오피아軍의 大部隊는 漸次 南下하야 北軍의 本據마카레에 集結하여잇다한다 伊太利軍主力部隊의 猛擊에 아도와의 要衝을 放棄한 에디오피아軍은 마카레戰線에 第二段防禦陣地를 構築하고 斷乎 伊太利軍의 進擊을 阻止할 方針이라고 觀察되며 마카레에는 에디오피아軍의 名將 라스 시옴까사將軍이 麾下의 精銳 八萬과 다시 集結한 十二萬의大軍을 引率하고 前線의 形勢를 取하고잇다 黑人帝國의한데부락線을 死守할 決意가 列烈하다고 傳하다 一方 伊太利軍은 아도와 攻略의 殊勳軍인 第二軍 마라비리아 將軍麾下의 第一軍과함께 全軍十三萬五千九驛隊의 堂堂한 陣容을 整備하고 아지그라르아손間 二十五哩의 戰線에 展開하야 數十粁를 隔하고 待機의 形勢를 取하고 잇는바 兩軍主力의 衝突도 바야흐로 目捷之間에 迫到되여잇다 그리고 一擧 아도와를 占據한 마라비니야將軍麾下의 第二軍은 直時 아도와와 駐劄伊太利事館에 駐中部隊의 司令部를 設置하엿다

伊總攻擊準備完了

【아디스아베바七日發聯合】北軍總司令의 戰況報告에 依하면 伊軍은 드듸어攻擊準備를 完了하야 北軍左翼은 악삼線에 向하야 總攻擊에 出할 形勢라고 傳한다

府縣會議員選擧 政友民政을凌駕

【東京電話聯合】府縣會議員選擧는 七日開票로써 二府三十三縣의것을 完了하엿는데 政友會는 左와如히 民政黨을 三十六名이나 리드하고잇다

政友會	六一四
民政黨	五七八
國民同盟	三〇
無産	三一
其他	一八
中立	一三二
合計	一、四〇三

八面鋒

◇

十三國委員會의 和協勸告案과 六國委員會의 制裁決議案이 理事會마은 通過헛다。

◇

聯盟總會가 制裁하지 안는以上、對伊經濟封鎖는 卓上에서 討論될모양。

◇

日、米、獨三國이 制裁에加擔하지안는다면 封鎖에 加擔하지 [illegible]

◇

結果가어지될가。

◇

그물은처도 구녁난 그물이라면、고기가새어나아가지아니할가。

◇

「世界」는 지금民主主義대문에頭痛中이다。그러나 獨逸은 平和의一員이다 녹고 히總統이 演說。

「나치스」는 [illegible]이라함이오

皇太子殿下 葉山御用邸行啓

【東京電話電通】皇太子殿下께옵서는 이미 報道된바와如히 御全快하옵시엇스나 아직 御靜養하시기爲하야 八日午前九時三十分 皇后宮大夫以下御乘車供으로 宮城御出門 同九時五十二分 東京驛發 同十時五十一分 逗子驛御着 葉山御用邸에 드러가시엇다

閑院若宮、同妃兩殿下 西朝鮮地方御視察

北朝鮮地方及 金剛山探勝을 終了하신 閑院若宮 同妃兩殿下께서는 八日 午前六時五十五分 京城驛御着 同八時御發 西朝鮮地方御視察로 向하시엇다 八日 平壤、九日 新義州를 御視察하시고 十日夜 京城에 御歸着하시와 朝鮮호텔에서 御一泊하신後 殿下께서는 十一日朝 南地로 向하실 御豫定이시다

德大寺侍從歸東

【東京電話電通】天皇陛下께옵서는 朝鮮始政二十五週年 記念式典에 際하야 朝鮮全土의 産業敎育社會施設等 文化의 發達을 視察케 하시압기爲하야 지난十八日御差遣하압신 侍從德大寺實厚氏는 式典參列及 二十日間에 亘하는 視察을 終하고 八日午前七時東京着 歸東하엿다 同侍從은 同日午前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視察狀況을 言上하엿다 近近書類其他에 依하야 詳細奏上豫定

조와한스타ー의 肉筆싸인을엇게된다
『하레야가』의愛用者奉仕
映畵팬의질거운消息

映畵撮影所內의公開는 여러가지關係上、從來至難한것으로서、아직것行치안이한일이다。
그런데、映畵팬들의憧憬은 一層더하야、그어려다고하든公開를、머리의榮養劑로서、實出하고잇는『하레야가』의本舖에서 實行하야다。
前日에開催된 松竹蒲田撮影所의 公開가그것이다。當日에는 東京은勿論 橫濱、川崎及近郊一帶의 팬!더군다나 映畵王國蒲田는人山人海가되야 大盛況을 이루엇다。中에도 가장人氣가잇든것은 스타ー의싸인所에殺到한 팬의熱狂的聲援의喚聲、그광장한 人氣에 本舖에서는 今回 全國의『하레야가』愛用者에도 松竹、蒲田의자랑꺼리스타ー의 肉筆싸인을進呈하며、近者의愛用에 報하는 模樣이올시다。
이것은『하레야가』本舖가 蒲田撮影所와特히密接한 關係가잇슴으로써 되는 他의追從을不許할 愛用者에의 奉仕일것이올시다
自己가 조와하는스타ー의 肉筆싸인을가지게되는것은 映畵팬에는 참으로 조흔일이다。詳細는近方藥店에서 알터니問議하야 이조흔機會를 일치말나。

腫氣 靑山膏 에옴 히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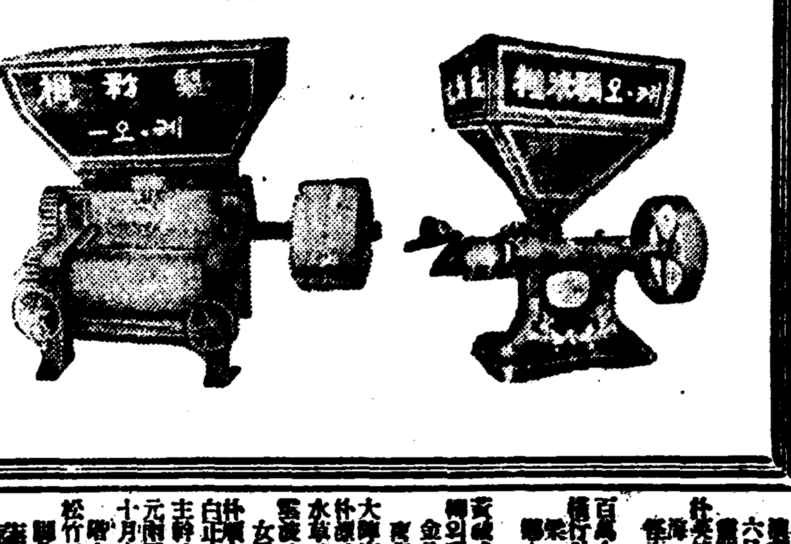
◇校舍大擴張◇
第四五回生徒募集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十月十日◇學則要二錢切手
實踐簿記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電本二一六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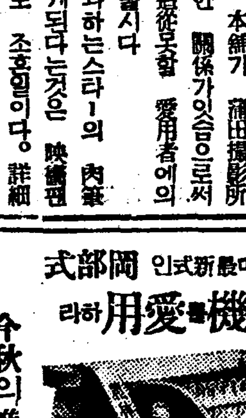
京城 生徒募集
◆新學期開始
◆中等科第二部
十月十日學則要貳錢切手
◆中學第一部(各中等學校入學)
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電本二一六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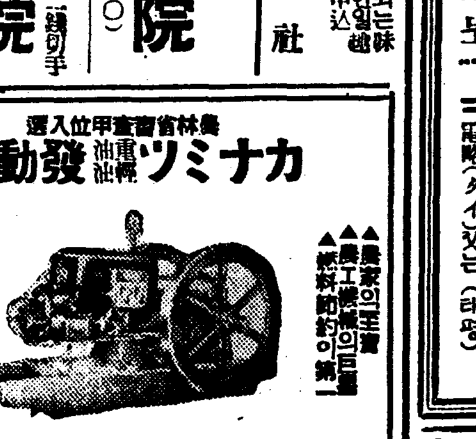
筆生
選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無交되는趣味와實益具備學生婦人婦女子最適한일(練習用紙)水纖확實한분에依賴한일서로申込詳細通知함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營業課目
케오ー式發動機
太平式精米機
太平式製粉機
太平式製油機
丸六式製粉機
ゴムロール式籾摺機
水車鐵物製造
發動機ホーリング
磨臼其萬石具
最新式稻扱機
各種機械附屬品
シャフト・メタル
皮革ゴムベルト
ホールベアリング
其他傳導用品一式
諸機械直輸入及製作

kOー石油輕油發動機製造發賣元
㊍太平鐵工營業部
京城蓬萊町一丁目七七(京城驛前)
電話長本局一〇九三番
電略(タイ)又는(태평)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廉價
今年에稻扱機는!
實用的이며最新式인 岡部式
稻扱機를愛用하라
今秋의準備는
時期迫切 下箱迫行
組立 一人用一臺(價格七) 二人用一臺(價九圓五十錢)
只今하시오

農具品專門製作販賣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振替大阪一九九一六 電話川二四六二一六一

農林省審査甲位入選
カナミツ發動機
輕油重油
▲農家의王寶
▲農工機械의巨星
▲燃料節約이第一

가장重寶한 外國輕油로完全히使用할수잇는最新型카나미쓰發動機에御注意

籾摺機의王座

特長
齒車チエンベルト를使用치안음、
馬力은적어도能率은높음
故障皆無
其他ゼットク式ポタ發動機及部分品
瑞光式神和式籾摺機特約販賣元
エノモト重油燃燒機、在庫豐富
型錄進呈
新風式 沿路에 現時無限를 [illegible] 籾摺機의出現에 注目하라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京城府大倉町四丁目十八番地
電話長本局五六番 振替京城三四四七番

十月九日부터十三日까지 朝鮮劇場
浦然好人氣!堂堂
第二週에繼映!!
每日三回(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映畵
春香傳
朝鮮映畵史上不朽의金字塔
興行界最高記錄樹立!!
監督 李明雨 李弼雨
中川堯史
文藝峰 韓一松 李鐘哲 共演
◆新興키네마社超特作映畵日本版
處女湖
◆파라마운트社特作日本版
롹키ー의怪人
全朝鮮第一映畵館
優秀映畵封切 團成社

百萬人熱讀의原作 全一幕三幕
花咲八百屋甲板上
海洋活劇 全一幕
太平洋을 떠나는聖女
全一幕
女子部無限 處女의失踪
全一幕
薩摩心中
現代劇 夢のささやき
帝キネ 可愛の後家さん
松竹三大名畵公開
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三三

共學制와各界輿論(三)

共學制度가實施되면 朝鮮말은업서진다

朝鮮語學會 李克魯氏 談

결논부터 말하면 단연 불찬성입니다 더욱히 내가 조선어학연구회의 한사람이라는립장에서 볼때는 공학제도의 결과가 조선어의 교육을 페지하게 된다는것만 가지고도 절대로 반대입니다 우리가 조선어학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눈물겨운것도 애를 써나가는것은 죽은말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연구는 한 수단이요 우리 조선말을 연구정리하여가지고 그것을 넓히 보급식히며 영구히 유지하자는데 잇는것입니다 그리하야 그보급과 유지의 대상은 학교와 학생인데 일단 공학제가되고 조선말의 학과가업서저바린다면 우리는 그 동안 가지고잇든 중요한 한수단을 일케되니 어찌 가석치 아니하겟습니까. 좌우간 이러한 국한된 립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조선사람으로 도대체 반대입니다 그리유야 여기에 설명할수업습니다 피합니다 또 가령 그와가튼 확충된 공학제가 실시되엇다고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 여러가지 지장이 만하서 당국자가 소기하든 성과와는 전연 반대되는 결과를 비저내고 말것이 십상이겟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조선사람에게 대하야 일본내지인과 동일한 일반 시설을요구할때에 당국자는흔히 경제적사정의 미급을 말합니다 사실그런점이 잇습니다 그런데 이경제사정의 차이가 현저한데도조선사람과 일본내지인이 한학교한강당에서 공부를 하게된다면한편이 경제가 넉넉하야 생활의 유리이 심지어 『벤또』그릇하나에까지도 반영되는반면 한편은 그것이 여의하지 못하니까 그수준에까지 자제를 올려노흘려는 학부형들의 고통도 크겟지만 학생자신은 은연중에 거기에서무엇보다 압서서 가난한자와부자에대한 감정의 격화가 비지어지고 말것은 보지아니하여도 잘 알일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만 보아도 반대이거든 하물며 문제의 핵심을 자버가지고 볼때에는 두말도할것 이업시 반대입니다 (사진은 리극로씨)

朝鮮人側의 意見尊重할일

上級校엔高普出身더뽑으라 第一高普校長 和田英正氏 談

공학문제입니까 공학을 식히려면 여간곤난한일이 아니라고믿습니다 나는 공학에대한경험이업서서 적확한말은 할수업스나 공학을 시행하야조선어생도와 일본내지인생도가 반반식되면 그들을 지도해나가기가 퍽곤난할것입니다 우리제일고보로말하면 조선어문과목을 교수하는것이 뿐이지 기타는 중학교와 똑갓습니다 공학을하게되면 조선어시간을 전폐하든지 또는 주리여야 할터인데 이문제는 조선인측에대한 중요한 문제인즉 조선인측의 의견을 제일존중하여야 할것입니다 딸아 조선인측의 여론이 공학을 찬성하지안는다면 불가능하다고믿습니다 다 그리고 도시의고등보통학교와지방의 고등보통학교의사정이 달러서 도시고등보통학교에서는상급학교지원자가 만흔관계상 조선어한문시간이 만흔것은 퍽 생도측으로 보아 불리한감이 잇습니다 이런점으로보아 나의희망으로는 현제 고등보통학교로 두고라도 도회지와 지방의 사정을딸아 조선어한문시간을 자유자재로 증감할수 잇도록하엿스면 합니다 그리고 공학하면 흔히 입학률문제가난다고 하니말이지 경성고공(高工)과 의전(醫專) 고상(高商)가튼곳은 너머나 고보출신학생을 적게뽑아 우리고보교장으로도 이상변전부터 교장회의 에서 결의하고 고보출신을 좀더만히 뽑도록 당국자의 의론한일도 잇습니다 이런점에대한 여론을 더욱적극적으로 일으켯스면 합니다 여하튼 결론은 공학은그러케 쉽사리단행할수업다는것입니다

卅一本山을單一化 佛敎를統制할方針

心田開發運動에並行하야 總督府서積極進出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과 병행실시중인 심전개발(心田開發)운동의 전면적전개를 목표로한 종교의 통제와장려 특히 조선불교의자력을하야 불교를 가지고 총독부 종지와교화사업의『사상적량식』(糧食)으로하려는 총독부의정책은 최근 점차 구체화하야 불교의부활과 륭성을도모하는 동시에 경성에잇는 불교의 통제를단행하려한다 즉현재조선내에 산재한 삼십일본산(本山)사찰을 통일하야 원의 재단법인 중앙불교종무원을 해산한후 입대본산으로하여금 중앙집권적으로 총괄적으로 각사찰을 지배케하야 현재의각 본산간의 세력분쟁을 근절하며 포교방법도 농촌의 부인중심주의로부터도시의가두로 진출케하야 지식계급중에 그교도를만히 획득하도록 할방침이라한다 그런데 이계획은 총독부에서 일즉부터 실시할의사는 잇섯지만 너머 종교의내부에 간섭을하는것은 조치못할가하야 유예하여 오든바 최근에 경남 통도사(通度寺)해인사(海印寺)범어사(梵魚寺)등이 중심이되야 조직된경남삼대본산 종무협회에서 이문제를 결의하야 당국에 의견으로 제안하는동시에 각사찰에 겨울날림일이잇는바 불교관계의 각방면에 이상한충동을주어 대세는 이에공명하는태도이며 또총독부에서는불교자체의 자치적 개혁안이 제출되기만 기다리든터임으로 이건의(建議)를 채택하야 불교의부활과 륭성을도모할터이라한다 그리하야 이에대한 구체안을세우고저 각본산과 교측의시찰의 말을다시 드러가지고 이것을 단행할의향이라는데 이것이 실행되면 불교는금후 총독부의『국가적종교』로서의 역할을하게 쫌긴밀한 관련을맺게되는것으로 주목되는사실이라한다

各本山도賛成

渡邊學務局長 談

불교의 부활정책으로 삼십일본산을 입대본산으로 통일하야 불교각본산의 파쟁을 방지하며 포교방법의 개선등을 적극적으로 압선한다는데 대하야 도변(渡邊)학무국장은 다음과가티말하엿다

『경남삼대사(寺)종무협회의 의견은 매우조흔의견으로 당국에서 발서부터 고려한문제이지만 너무종교내부에 간섭을 하면 안되겟기에 자치적으로 그러케될때를 기다리고 잇든 터이다 다행히 각본산에서도 이에 찬동하는데가 만흠으로 아 건의안(建議案)을 중심으로 당국에서도 불교측과 협력하야 불교의개혁과 부활을 도모할터이다 동시에 불교로서는 직접불교관계이외의 사업을 경영할필요도 업스니 그런것은 다른데로양도하야 인게케한후 오로지불교자체의 번성을 도모하게할터이다』

權榮台等卅四名 公判은來月下旬

西大門事件의主要分子들 記錄만도一萬餘枚

강릉공산청년동맹(江陵共靑)사건은 서대문경찰서사건(西大門署事件)이라고 불리워지는 전 경성제대교수 삼택록지조(三宅鹿之助)며 또박 도 량주이래 경성에서 버러고잇서 운동을 계속중이라고 지목을 밧고잇든 리재유(李載裕)등이 관계된 조선공산당재건동맹(朝鮮共再建同盟)사건 가운데 최선규(崔善珪)등 아홉명은이미 공판까지 끄치 낫거니와그 나머지 산업별 적색로동 조합(産業別赤色勞組)의 관계자 권영태(權榮台)등 삼십사명에 관하야는 지나간 팔월입심일 예심이 종결되며 공판에 회부되어 래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의 손으로 공판준비중에 잇는데 서류가 일만매를 넘는방대한것으로 그것을 한번 읽기에만도 삼개월이 걸리게되는 터이라 준비가 매우 느진모양이다 그리하야 공판이 열리기에는 아표로도 입개월반은 더걸리어 십일월하순경일듯하다 하며 공판이열리면 출정될 피고들은 다음과갓다

▲權榮台▲鄭泰植▲韓六洪▲金大容▲金晋成▲安秉潤▲安鍾瑞▲朴鼎斗▲徐升錫▲李明新▲金熙鍍▲崔慶玉▲李元爀▲許마리아(女子)▲安炳春▲李丙駿▲安三遠▲李順今(女子)▲李景仙(女子)▲鄭七星▲李鼓相▲崔小福▲邊雨植▲南萬熙▲任澤宰▲鄭龍山▲李古萬▲金三龍▲卞洪大▲金元經▲李星出▲洪承文▲崔永昌▲朴壽昌

旅各機墜落十二名死

【싸이마니와이오미州】 七日發電 『실바ー크라운』부근에서 이메리카 합동공수회사(合同空輸會社)의 려객기(旅客機)가 추락하야 려객구명과 승무원 삼명이 참사하엿다

賃金不支拂로 百餘人夫恐慌

【咸興】 함흥부 대화정(大和町)에잇는토목청부업자조선조(旭組)에서는 지난칠월이십팔일부터팔월말일까지 갑산군(甲山郡)갑평교(甲坪橋)수선공사에 사역한인부일급 갈돈자의 식비합계사백삼십일원십칠전을 아직까지지불치안허 인부백여명은 의끈궁에빠저 매일공사 사무소에 살도하여 임금지불을 요구중인바 사태가 자못험악하다고한다

新米出廻期로 白米價格小落

毎키로에五厘式引下

천정을 모르고 올나뛰기만하든 쌀갑은 마츰내 팔일부터 내리게되엿다 경성부공설시장에서는 백미를 매키로에 오리식을 내렷는데 이는 조선쌀은 제일회예상발표에 잇서서 풍작(豊作)편이엇고 농림성(農林省)관하의 일회예상이 륙천만석이엇슬도 구월이십일이후로 풍수해가잇서서 만흔감수를 보일줄알앗든것이 최근에와서 감수는되야도 역시륙천만석대는 벌서 게될것으로 긔미(期米)갑은 부터 내리엿는데 거긔다가 신미가출회(出廻)하야 마츰내 물의하락을보엿다 압흐로도 더 내릴것갓다고한다 이와가티 한키로에 오리식 이네림은 결국한가마에 삼십전가량이 네린것이다

腸窒扶斯·赤痢는 빈대와쥐가傳播

京畿道警察部에서調査研究 管內에大宣傳準備

경긔도경찰부위생과 방역계(防疫係)에서는 올봄부터 맹렬한형세로 전파되는 장질부사 적리(赤痢)등의 전염계통을 예의연구중이든바 이지음 빈대가 장질부사를 쥐가 적리를 만히전파식히는사실이 판명되엿슴으로 일반민중에게 이사실을 선전하야 장질부사 적리등 전염병퇴치의 한방침으로 빈대와 쥐의 구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되엿다 빈대가 장질부사환자의피를 빠러먹어 그배에 장질부사균이 들어간후 다시 다른사람의피를 빨때에 균이 전파되는것이고 쥐는 적리환자의 배설물(排泄物)이나 또는 환자가 먹다가 남긴 음식버린것을 먹어 적리균을 보균한후 사람이 먹을 음식물을 또는 그재로에균을전파하는것이라한다 방역과계원의말에 의하면 빈대는 사람의 피를빠러괴롭게할뿐만아니라 장질부사균을 전파하며 쥐도적리병을 전파하는데 그룹이 상당히 놉흔즉 민중은 적극적으로 약품을사용하야 빈대와쥐를 퇴치하여주기를바란다 고하는데 동위생과에서는 방금 꾸미는중으로 일간각경찰서에 통첩을보내여 각가정에대하야 빈대와쥐잡이를 철저히하도록 선전할터이라한다

故鄕羅州로 朴君今日飛行

羅州에着陸數日滯留

고토방문비행(故土訪問飛行)의길을 떠난 일등비행사 박봉지(朴鳳枝)군은 지난오일에울산(蔚山)비행장에착륙하는 잠시 기체에고장이 이러나 근본적으로 수선하지 안코는 다시비행을 계속할수업시되엿슴으로 일단비행을 중지하고 다시긔회를보아서 재거하기로하고 상경하야 가족친지와 향인 전남일대의긔대를 저바릴수업다하야 분투이 비행을 계속하기로되야 박군의친우 김동엽(金東燁)씨의 호의로 그의애긔를빌녀 금일오전십일시 삼십분 여의도(汝矣島)비행장을 출발하야 남으로 고향을향하엿다 라주에 착륙하야 수일간 류하고 경성으로 다시날어올터인데 김동엽씨는 전날동긔의착륙의 준비를위하야 라주에와잇다

◇舟橋普運動會 시내주교공립보통학교(舟橋公普)주최의 운동회는 십일오전 아홉시부터 동교운동장에서 성대히 열릴터이라한다

學校內規에는 容喙를不要

儆新學校庭球選手問題 木野學務課長 談

지난구월이십일일(토요일)과 이십이일(일요일)량일간 경성운동장코트에서 거행된 경성약학전문학교(藥專)주최 전조선중등학교연식정구대회(全朝鮮中等學校軟式庭球大會)겸 명치신궁(明治神宮)경기대회 조선예선대회에서 우승하야 전조선의 패권과 신궁경기 출장자격을 획득한 경신학교(儆新學校)정구부선수 최룡봉(崔龍鳳)박차상(朴鏡相)량군은 학교의허가도업시 교에서 금하는예수교의 안식일(安息日)인 일요일에 대회에참가한것이 문제가되야 그들은 교규에 의하야 이십오일동안식 정학처분을 바덧다 주최자측은 그들이 신궁경기출전자격자인만큼 어떠케던지 대회에 파견할 운동겸 또그들에대한 학교의태도가 가혹타하야 경긔도학무과에 호소하여왓슴으로 학무과에서는 학교당국자를불러 전후사정을 물어보앗다 문제가 교규에 관한문제임으로 학무과에도 다만 사실전말을 조사할뿐이엇는데 이에대하야 목야(木野)학무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생도가 대외적으로 경긔대회에 참가할때 학교장의 허가업시 한것이 잘못이고 또일요일에는 대회에 출전해서는 안되는줄 알면서 학교에 몰래출전한것은 학생답이잘못입니다 그들도 이잘못을 알고 정학처분을 그대로 달게밧고잇답니다 처분여하문제는 학교내규인즉학무과로도 용훼할배가 못됩니다 결국그선수들은 대회에파견되지못하겟지오 운운

東幕火鐘盜難

불종을 훔처간 괴이한절도 지난사일 오전령시경부터 오일오후동시오십분간 사이에 부외동막상리(東幕上里)일백팔십일번지 압헤잇는 룡강(龍江)소방조 제일부 소속인 소방용 경종한개를 어떤자가 훔처간 사건이 발생하야 룡산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이비밀리에 범인을 엄탐중인데 이종은 놋쇠로『메롱』이나 되는 사고리 우에걸어 노앗든것이라한다

外人土地所有 朝鮮서도制限

外事課에서立案中 군사상기타심상치안타고

조선내에잇서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기위하야 새로법령을 제정하고저 그간총독부외사과에서 조사준비를 거듭하고잇든바 최근대체의립안이 끗낫슴으로 다시문구의 심사를한후 심의실에 회부할터이라한다 그런데 최근라진(羅津)을중심으로 북조선각지에서 외국인의토지매수책동은 더욱맹렬함으로 총독부에서는 법령이 실시되기전에 그들이 매입을하면 곤난함으로 각도에엄명하야 외국에대한 토지매매를 암암리에 취체하도록 하엿다한다 이법령은 일본내지와 화태(樺太)대만(臺灣)에는이미 외국인토지제한법이라는것을 제정실시하고잇스나 조선에는 그것이실시되지안허 그간 외국인이 해안선 중요지대에 흑은 주택지로 흑은 기타 상공업의 목적으로 다수를 매수소유하고잇서 군사상에도 자미업슴으로 이번에조선에도 칙령(勅令)또는 제령(制令)의형식으로 내용은 일본내지의 그것과 비슷한 것을 제정하야 실시할터이라한다 그리하야 이 외국인 토지제한령은 불일심의실로 회부하야 법제국에 회부한후 금년안에 심의를마친후 명년일월부터 실시하게되리라다한다

運動競技

神競蹴球開幕 鏡農不戰一勝

朝鮮神競中等校 蹴球戰第一日은 八日午後二時半부터 淸凉里城大豫科球場에서 培材高普對普成高普戰으로부터開幕되여 接戰中에잇스며 鏡城農業對平壤高普戰은 平高가棄權하야 鏡農不戰一勝코 第二回戰에서崇仁商業과對時케되엿다

野球對陣決定 東萊高普出場

朝鮮神競野球競技는 來十一日부터 二十日까지 京城球場에서行할터인바 各部對陣은 다음과가티決定되엿다

◇中等校部

【第一回戰】(十五日)

A東萊高普…京商(後三時)

【第二回戰】

B大田中…平中(十六日後三時)

C鎭南商工…仁商(十七日前九時)

D新義州商…龍中(十七日後三時)

E京商…A의勝者(十八日後三時)

【準決勝戰】(十九日)

C의勝者…D의勝者(正午)

B의勝者…京商對A의勝者(後三時)

【決勝戰】(二十日正午)

◇專門部

城大豫科…京醫專(廿日午前九時)

◇一般部

【第一回戰】(十四日)

A平鐵…大田(正午)

【第二回戰】

B成北…平實(十四日午後二時)

C慶南…鎭南浦(十五日正午)

D全北…全仁川(十六日正午)

E慶北…A의勝者(十七日正午)

【準決勝戰】

C의勝者…D의勝者(十八日前九時)

B의勝者…慶北對A의勝者(十八日正午)

【決勝戰】(廿日午後一時)

◇軟式野球部

【第一回戰】(十一日)

A北朝商與…平壤鐵道(前九時)

B江原道廳…電車課(前十一時)

C大邱機關…綠俱(後三時)

D朝運…貯畜(後三時)

【準決勝戰】(十二日)

A의勝者…B의勝者(後一時)

C의勝者…D의勝者(後三時)

【決勝戰】(十三日午後一時)

世界野球選手權 타이거스獲得

캅스軍敗退

【데트로이트七日發聯合】世界野球爭霸戰의 第六回戰은『타이거스』三勝、『캅스』二勝의 뒤를니어 七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데트로이트·네뷔필드』에서擧行하엿는데 四A對三으로『타이거스』軍이 四勝하야 今年度의 選手權을獲得하엿다

캅 001020000 3

타 100101001 4A

神宮卓球日程變更

朝鮮神競卓球日程及場所는 다음과가티 變更하엿다

▲日程=一般選手競技=十月十七日(午前十時) 男子中等=十月十二日(正午) 一般女子=十月十三日(午前十時)

▲場所=京城府營講堂을 淸涼里大學豫科講堂으로變更

全日本陸上日割決定

【東京電話】第八回 明治神宮體育大會兼 第二十二回全日本陸上競技選手權大會의 開催日程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

▲第一日(十一月一日)午後一時開始 府縣靑年團對抗第一日

▲第二日(十一月二日)午後一時開始 府縣靑年團對抗第二日 男子選手權第一日

▲第三日(十一月三日)午後一時開始 男子選手權第二日 마라손 選手權

▲第四日(十一月四日)午前九時開始 女子選手權

講武館創立記念

朝鮮講武館에서는 來十一日이 同館創立十二週年에 該當함으로 年年히 記念行事에 하나인 柔道演武會를 公開하야왓섯스나 今年에는 事情에依하야 公開演武會는 停止하고 同館內에서 館員들의 自祝會가 잇슬터인데 九日午後八時에는 一般館員會를 열고 諸般事를 討論한다는바 館員들의 無闕參席을 바란다한다

醫學哲學講演 中央禮拜堂에서

시내인사동(仁寺洞)에잇는 중앙례배당(中央禮拜堂)에서는 팔일과구일오후칠시부터 다음과가티 학술강연회(學術講演會)를 개최한다한다

『비타민』에對하야(八日) 申弼浩博士

哲學과宗敎(九日) 韓稚振博士

天氣豫報

晴一時曇

七六八미리의 高氣壓은 南朝鮮에서 黃海、日本中部에따저 漸次로 東으로移動하려한다。滿洲朝鮮一帶는 가을날이맑다 氣溫은 昨朝보다 五度內外노 말고 日本도 一般으로 天氣가조코나 東京附近은 흐리하다

昨日最高 一五、九

同 最低 五、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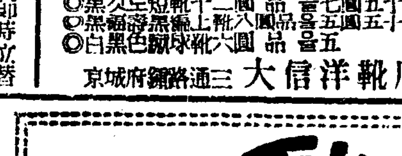
今日正午 一七、四

痔疾에는 오세로 치질藥으로 オセロ ¥0.30 ¥0.50 全國各藥店에잇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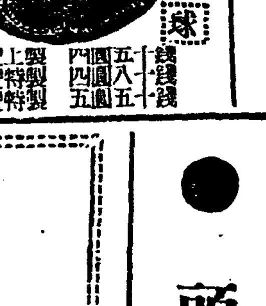
네오지린 ネオヂリン

可恐할害毒을流行식히는淋疾。消渴의療法으로서茲의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獎의最新藥ネオヂリン의服用을推獎한다。本劑는當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써殺菌力이가장强하고急性慢性惡性은勿論、膿、痛症도解消된다 (療法書進呈) 二圓、三圓、五圓、十圓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洲川町淡河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恩給 低利即時立替 京城鐘路五ノ三一番地 京城師範學校北川邊 電話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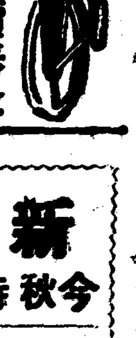
▲寸法明記先以一圓送金上合 京城府鐘路三通 大信洋靴店



特製 ○五號上製 四圓五十錢 ○五號特製 四圓八十錢 ○六號特製 五圓五十錢

天銀鑛業社 京城府公平洞九番地 電話光化門1482長 一般鑛務 分析은 責任 分析工業科斷事研究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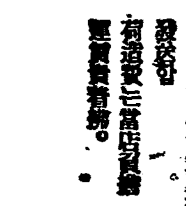
Columbia 不朽! 이傑作盤!! 아득한 千里길 蔡奎燁 (四〇六二一)



自轉車附原價奉仕 特典 信用問屋

日本서最初의蓄音器月賦販賣

月賦通信販賣



小唄 勝太郎

小唄 勝太郎

蓄音器空前의大英斷……

단지初回金八圓으로이蓄音器와

빅타ー專屬 流行小唄界의花形 勝太郎의『島の娘』外에 新譜레코ー드三枚 針四百本 이只今곳당신의家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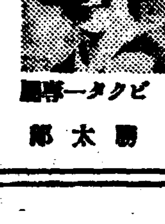
世界的名器メリーポータブル新發賣品

定價三十五圓의品五〇〇臺限犧牲的特賣

價額十七圓也(初回八圓殘金每月三圓式三個月拂)

申込方法 葉書로서申込次第 곳初回金八圓의代金引換으로發送함 荷造費는當店負擔 運賃費着拂

殘額拂込方法 殘額은品質保證때문에翌月부터每月三回後三回에分割하야郵便局에서集金할갓으로써殘額代金은確實한品으로認定바든後에代金을바드니으로써絶對的으로安心하니다



ビクター專屬 勝太郎

岐阜市加納本町三 合資會社 服部商會蓄音器部 電話(長)二四四〇番

登錄商標

新生薑

販賣時期ー陽十月十五日頃 陰九月中旬頃

全羅北道特產品

鳳翔生薑指定取扱人

社團法人 鳳翔產業組合

全羅北道全州郡鳳東面 振替京城二〇、〇五八番

頭痛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30 ¥.50 ¥1.00

運轉手諸君! 十三道就業免許는 此書一冊에서 求하라

助手諸君! 新法規의 難解地獄은 此書로 突破하라

自動車運轉及各道就業免許 受驗準備書 出來

問答式洋裝美本ケース入 大特價 一圓五十錢

京城府太平通二丁目 朝鮮第一自動車學校出版部 振替京城二四〇六一番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高等科書에 通하야 誠實勉强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 普通科 卒業(速修) 卒業(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 振替京城八八九五

本會의特徵 每月刊 無代進呈

映畫 永久の愛に出演の絹代さんの衣裳

冬の豪華版モードの王様狐毛皮 進呈！

サラっと爽か！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 크림 (바니싱)

バニシング

賞品

特賞 여호목도리 三十名

A賞 絹代입은「永久의愛」出演衣裳 五十名

B賞 栗島考案핸드빽 五十名

C賞 다ー키ー愛用 純銀반지 百名 (以上高島屋謹製)

D賞 美術粉白粉容器 二千名

E賞 다ー키ー傑作 寫眞集(알범) 千名

F賞 스타ー自叙傳 빠짐업시드림

懸賞課題의 生覺하는 法

一、本名은？

二、生日은？

三、첫演出은？

四、趣味는？

三大스타ー에 네가지質問을하엿더니 別로말치안흔 趣味와美의 秘訣等을下記와가티 對答하여주엇습니다。당신들이 조와하시는 스타ー를每日그려케도어엽부게하여주는것을 下記規定에 依하야 對答하여주십시요。

申込規定

▲答案用紙 마스타ー香粧品定價三十錢以上分사신 後에 그空函의 裏面에答과住所氏名 朝鮮日報名을明記하야주십시요 (郵稅는 空函一枚마다 三錢切手를封套에貼付하여주십시요 郵稅不足한것은 受理치안음니다)

▲發表 昭和十一年二月號婦人雜誌 (主婦之友、婦人俱樂部 婦女界、婦人公論)

▲抽籤 應募者多數時는嚴正抽籤합니다

▲賞品發送 一月中旬(C・D・E・F賞에 當籤된분은 賞品發送으로써 發表에代身합니다。

▲締切 十二月十五日

▲送處 京城太平通一ノ六一朝鮮日報社廣告部內 マスター香粧品懸賞係

水の江瀧子

一、ターキー는三浦うめ子……

二、大正四年二月 北海道小樽市스란(鈴蘭)꼿이 핑그러운郊外는나의가장 追憶되는곳이랍니다。

三、「先生はお人好し」

四、映畫、演劇等은工夫中……우동？ 그러고나의 生活必須品이지요 호호호ー에조곰도 얼골이 안꺼러다고요 그立體的인빗갈 그러고優雅한 香氣 마스타ー크림의가가오는과 살속으로 살르르 녹어드는 마스타ー바니싱을 家庭化粧에 여러것 愛用하고잇는結果이지요

栗島すみ子

一、栗島すみ子는 本名 只今은池田すみ子

二、明治卅六年三月生입니다

三、「虞美人草」

四、나의舞踊은 嗜好를넘엇서요 호호 그러고 핸드빽을 蒐集한것과 그것을 自己가新案한것이조와요 그러고 美容硏究지요 우리스미美容院에는요새 마스타ー液狀衿白粉이 굉장한 好評입니다。第一白粉下가 업시도 꼭 물粉을엽끌에 발는것과갓흔 方法으로 썩簡單히 스마ー트한목덜미化粧이됨으로 年中紛忙한 우리들에게는 아조 퍽조와요……발는뒤에 죽이주건으로 살작눌는것가치 끌느면이와가티 美白하게된답니다。

田中絹代

一、絹代짱은 亦是田中絹代

二、明治四十三年十二月에낫스니今年에 몃살일가？

三、映畫「恥しい夢」에處女出演

四、요새나말슴이요！日用裝飾物모으기에專心하지요 趣味는？스포츠、音樂、고양이、缺餠、호호호第一조와하는것이아죽 도하나잇지요 그것은요、참으로 발는것갓치보이지안케나의목과얼골을 살바랑부러이려케도美白하게소쉽게만들어주는마스타ー衿白粉과물白粉의 新肌色！나는이러것의 優雅한香氣와 淸新한빗갈이아조썩조와요……

싸홈이되기까지 두나라의관계
옥신각신해온그전말

작년십이월에 에디오피아군사가 이태리 식민지 소말리랜드로 침범해 들어 왓다고 이태리편쪽에서 발표하얏는데 이태리는 원정군(遠征軍)을 준비한다고떠 들엇다。 그러나 불란서와 영국이 나서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론난을 하게 되매 「당시는 이태리도 할수가 업섯든지 구원에와서 에디오피아와함께 서로 친락하지말고 평화하게 지내자고 조약을 맷고 성명서까지내기에 이르럿다。 그런지 석달이 채 못지나서 작년십일월스무사흔날 에디오피아 남부 왈왈이란 지방에서 이태리군사와 에디오피아군사가 서로 충돌되얏는데 에디오피아는 이태리군사가 몬저 총을노핫다고하지만 이태리는 에디오피아군사가 총을 노핫다고하야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잇섯다。 그뿐이 아니라 그뒤로는 이태리식민지와 에디오피아의 국경에서 자조 말썽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게되매 평화로운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수습되지못하도록 형세가 극히 험악해젓다。

작년 십이월십사일 에디오피아는 할수업시 국제련맹(國際聯盟)에 향하야 이태리의 침략적행동을 제재해달라고 청하고 다시 금년일월삼일에 와서는 국제련맹의 규약을 의거하야 정식으로 고소수속을 취하얏다。 련맹에서는 림시리사회를 소집하고 그문제를 토의하얏스나 이태리가 결국 중재위원회란것을 조직해노코는 아모런 해결도 짓지 못하얏다。

일월이후 국제련맹을 에워싸고 각국의 태도가 가장 주목되엿다。 물론 영국은 애초부터 에디오피아동정과 이태리반대요 각국소국들도 빈말로나마 모다 억강부약으로 일치하얏다。 그러나 불란서만은 이태리를 항상 싸고 돌앗다。 불란서의 은근한 추파아래 련맹에대한 이태리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갈뿐이엇다。

불란서의 알선으로 중재안이 여러번 제의되엿스나 모도다 실패로 돌아갓다。 심지어 에디오피아에 잇서서 경제적으로는 이태리의 모든권리를 승인한다고 까지 말하얏스나 그역시 거절되얏다。 그런데 영국의태도도 심히 강경하야 군함을 지중해로 모흐는등 그부근일대 영국식민지의 군대를더 보내는등 야단이 낫다。 불란서도 슬그먼이 영국으로 가깝게 달아나서 이태리를 견제하려고 덤비엇다。

여기서 이태리도 다소 실망하얏스나 이미 빼든칼을 그대로 꼿기에는 넘어 거북하다。 영국이 어떠커나 불란서가 어떠한다는 그것도 무섭지만 긴장된 국민감정의 폭발은 더 두려웟든것이다。 시월초삼일 이태리군대는 벌써 에디오피아를 향하야 진군을 개시하얏다。 선전포고는 업서도 전쟁이 시작됨에 틀림이업다

특집

식민지 대륙에서 단하나의 독립국
저마다침흘리는영、불、이삼국
이번 전쟁의 원인

자긔나라에서 맨들어 내인 물건을 팔기위하야 또 맨들어 내일 물건의 원료를 사드리기 위하야 소위 현대의 자본주의국가들은 식민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식민지가 아니기로니 아모데서나 물건도 팔고 원료도 사드리지 못 할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 저 나라 다각금 경쟁스속이라 아조 자긔네의 식민지로 딱 결정을 하여서만 비로소 모든데 손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멧세긔스동안 각국의 전쟁이란 모도다 식민지를 엇기 위한 전쟁입니다。 요 전번 세계대전도 그러한 전쟁에 지나지 안습니다。 식민지를 엇기에 가장 밤밧게 덤비인 것은 영국이요 그다음 독일 불란서 등의 각국이 될것이며 식민지 논홈목이에 가장 대표적지대가 된 것은 아푸리카요 그다음이 아세아 아메리카등의 대륙입니다。 영국과人발아래 태양이 떠날때가 업도록 영국의식민지가 만흔 것도 오로지 그관계요 아푸리카가튼 큰대륙에 에디오피아를 빼노코는 독립국이 더다시 업는 것도 오로지그관계입니다。 에디오피아를 어대 독립국으로 남을것이 남앗습니까? 영국 불란서 이태리등 세나라의식민지에 싸히어그세나라에서 재각금 침을 흘리는 바람에 우연히 남어 온것이랍니다。

그런데 그세나라중에서도 제일 에디오피아를 욕심낸것은 이태리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태리는 본래 식민지가 다른나라보담 아조 적고 또 이태리 식민지의 『소말릴란드』란 땅과 『에리트리아』란 땅이 에디오피아에 가로막히어 심히 불편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불란서가 잇서 어대 그 욕심을 마음대로 펴게해줍니까? 세계대전전에 에디오피아 안에서 란서세력이 좀 성해 가니까 영국이 이태리에게 추파를 보내어 이태리에서 에디오피아를 처들어 갓더니 그다음 영국은발딱깔을 잡고 불란서는 로골적으로 에디오피아를 도와서 아도와의 불명예스러운 패전을 당하고 만일까지 잇지 안습니까 세계대전이후에도 그 형세는늘 변함이 업습니다。 이태리는 오매불망하다시피 전날패전의 원수를 갑고자도 생각하건만 영국이며 불란서가 에디오피아를 편들까 무서워 은인자중할수밧게 업습니다。

그러다가 작금량년이래 이태리에게는 조흔긔회가 왓습니다 그 조흔 긔회란 다른 것이아니라 불란서가 독일을 겁내여 이태리와 친하자고 대어 드는 것입니다。『자 이제불란서는 이태리의 편이 되얏겟다』로영국인들 설마 에디오피아를 위하야 긔쓰고 나설 일이 잇슬라고』이태리의 총리대신 뭇솔리니씨는 아조 깃버하고 질거워하얏습니다。 더구나 때마침 파시스트라는 정당을 건긔하고 이태리를 지배해오는뭇솔리니씨로부터 민심이 허터지고반대가 일기 시작하는지라 에디오피아를 정벌하는 차비를차리어서 인민의 감정을 딴곳으로 돌려버리는것이 해롭지 안습니다。 작년십일월 에디오피아의 왈왈이란지방에서 에디오피아군사와 이태리군사가 충돌되자 고만 이태리정부는 벗적 강경한 태도로 나왓습니다。 여러나라에서 이런방법 저런방법의 해결안을제출하야 보앗스나 자긔의 식민지를 맨들기 이전에는 조금도 양보를못 한다고 뻣대고 말앗습니다。 군대를 실어 보낸다 탕크 비행긔등을 보낸다 이태리는착착 전쟁의 준비를 해나갑니다。 에디오피아의 장마철이 지내기만 하면 곳 처들어 가려는 형세엿습니다。 그런데 불란서는 슬그먼이 이태리를 편들고 영국혼자만이 속이 상한것이 아니겟습니까? 더구나 아푸리카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만흔터로 이태리세력이 강성해지는 그만큼 장래의 불치한 후환을 이루지 말란 법이 잇습니까? 이태리에서 예상하든 것보담 영국의태도는 훨씬 강경해 젓습니다。 그뿐이아니라 불란서와 잘 말하야 불란서조차 처음과가치 이태리를 편들지 안코 도리어 영국과 공동행동을 취하겟다고 나섯습니다。

여긔서 이태리는 과연 처음人뜻과 가치 에디오피아 정벌을 하랴 안하랴가 흥미잇는 문제엿스나 이미 전쟁준비를 하기에 막대한 희생을 해노코 고만 둘수는 도저히 업섯든 모양입니다。 그래도다작정해노흔 국가총동원을 미룰미룰 연긔해가더니 드듸어 국가총동원을 단행하는 동시 에디오피아로 처들어 가고 말앗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이태리와 에디오피아가 전쟁을 한다는 그것보담도 이태리와 영국이 대립되야 잇다는 거긔에 큰 문제가 노혀 어 잇는 것입니다。 만일 이태리와 영국이 에디오피아 문제로 인하야 충돌이 되고 내지 전쟁이 된다면 그야말로 세계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ㅅ수 업습니다。 지금 세계각국은 서로서로 리해를 달리하며 얼켱거리는판이라 이태리와 영국의 충돌이 마츰내 제이의 세계대전으로까지 발전하지 안흘는지누가 압니까? 우리의 관심도지금까지에 잇지안코 지금부터에 잇는것이올씨다。 거긔뜰어 다른 대륙에서 조그마치 전쟁이 낫다고 옷읍게보아 버릴문제 아닙니다。

삼천년황통을 자랑하는『에디오피아』
그지리、력사、민족에대하야

一、지리와긔후

『에디오피아』란 나라는 그대부분이 드노픈 언덕으로 되야 잇습니다。 그 언덕이 다시 동서 량쪽으로 갈리고 그중간엔 큰 골이 저서 잇습니다 서쪽에잇는 언덕에는 청(靑)나일의 원류가흐르는『타나』호수가잇고 그 북방에는 이나라에서 제일놉흔『라슈、다산』이라고하는산이 놉히 솟사잇습니다 그의외에도 서북방으로 연해소는 천험의 놉흔산이잇서서 맛치 광풍에 놀랜파도가 그대로 어려 붓튼듯시 험준함으로 오놀날 이태리가 저럿케 야단스럽게 날뛰여도『에디오피아』사람들이 겁을내지안는것은 자긔나라의 지세가 난공불파의 험준한것을 맛는때문입니다。

따라서 긔후는 간습(乾濕)이 각로 논하졋는데 바다에 갓가운곳은 일년중에 비가만흔 산에것가운곳은 비가적으며 놉흔 언덕이되어잇는 지방은 매우춥다고합니다。 이나라의 수부인『아디스아베바』는 평균온도가 매월 십오도가량되다고하며 산물도 놉흔언덕과 나진들에는 달너서 나진데에는 열대식물이 무성하고 면화、딸기、『빠나나』、감자、야자 대추가튼것이나고 동물도 사자 코키리、표범、긔린、반마、가튼것이잇스나 놉흔데에는 곡물과 대나무가튼것이 강가에 만히나고 포도、『오렌지』배 가튼것도 만히 나며 여긔 저긔에 목장이 홋터저 잇다고합니다。 목축으로는 소、양、산양、낙타 가튼것이만코특히 이나라의 남방『하라르』라는지방에서 나는『하라르커피』라는차는 매우 유명한것입니다。

二、주민과 정치

이나라의 주민은 일천만 가량이나되는데 그중에 삼백오십만은『하므』계통인『아비시니안』족으로서 전부 예수교를 밋고잇스나『세므』계통인『아라브』인들이 처드러와서 그리로 만히 귀화하게되고 또한『늬그로』족과도 혼혈(混血)을 하게되엿스며 이외에도『하므』계통인『가라』족과『쏘말리ー』족도 잇다고합니다。『아비시니아』족은 긔원 사세긔때부터 예수교를 밋게되여 지금까지도 그원시적인 신앙을 계속하고잇다고합니다。

이나라는 오랫동안에 정치적으로 성쇠한것이 여러번이엿스나 오늘날『에디오피아』사람들이 자긔의 나라일홈을 아주 명예스럽게생각하는것은 실로 그국가황통이 삼천년동안이나 면면하게 아어왓다는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이나라가 가장 융성한때는 십구세긔말에 즉위한『메네리크』이세라는 영주가나서서 국운을。매우 륭성식혓슬뿐만아니라 오늘 이태리의 끌수에맷친 원한을풀게한『아도와』전쟁에서 이태리의 대군을 격파하여서 그때부터『에디오피아』를 자긔의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한 이태리의 야심을 여지업시 짓밟은일이 잇섯습니다。 지금의황제는『하일。실라시에』일세로서일천구백이십팔년에대관식을 거행하고 일천구백삼십년사월에 황제의중통을 밧게되여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정치제도는 절대주권군(絕對君主權)이확립되여서 봉건정치를 시행하고각지에 추장이잇서서 토지를 논하가지고 잇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란 국명의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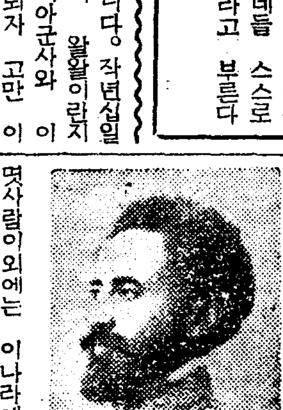
에디오피아는 아비시니아라고도 합니다。 보통 지리책에는 아비시니아라고 쓴곳이 오히려 더 만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지나라고하면 중국인들이 실혀 하듯이 에디오피아를 아비시니아라고하면 에디오피아人사람들이 실족해 한답니다。 그도 그럴것이 아비시니아란말은 아라비아人말로 변방에사는 인종 즉 오랑캐란 뜻이랍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는 무슨뜻이냐 하면 검은 사람이란 뜻이라나요 그역시 조흔 이름은 못되건만 자긔네들 스스로도 에디오피아라고 부른다니까요。

진긔한풍속멧가지
『에디오피아』의
녯이야기가튼 그들의 생활
담배는 안먹어도 술은고래

에디오피아사람은 다가튼 아푸리카사람으로서 풍속습관에잇서서 사뭇다른점이퍽만습니다 제일에 이나라사람의풍속중에 자미스런것은 소의날고기를먹는것입니다 우리조선사람도 소의날고기를회해먹으니까 그풍속을그다지 신통찬케여일찌모르나 우리네가 육회를 먹는그이상 유난스럽게 소고기를조와하고 더욱이 날로먹기를조와합니다

소의날고기를 그나라사람들은『부룬도우』라고 합니다 이『부룬도우』는 이나라에잇서서 제일치는음식이요 귀한손님을 대접하는경우 임금이 신하에게 연회를베풀때 반드시 업서서 안될것이되어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나라사람들에게는 기생충(寄生虫)가운데 촌충이 제일만습니다 그래서 한달에한번식 정해노코『쿠쏘ー』라는 풀을먹습니다 말하자면 구충제(驅虫劑)지요—

◇



에디오피아에는 심어서거두는 사람도업것만 담배풀이 제멋대로 성장해잇습니다 그러나 구라파에를 갓다왓거나 외국사람에게서 담배피우는법을배워 자미드린 멧사람이외에는 이나라에 담배피우는 풍습이업다고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엇재서 그러냐?— 어느정도까지는 요먼저임금『조하네스』가 야단스럽게 금한까닭도잇겟지요。 엇더튼『조하네스』임금은 담배먹은자만 잡으면 형벌로 꽉 입술을 비어버렷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무서워서 이나라사람이 담배를 안피우게되얏다는것도 아닌모양인데 금연을하는원인이 피우기시른것도 큰원인이요 그외다른 알수업는원인도 잇습니다。

◇

이나라사람들이 담배를 안피우는대신 술을엇척즐기게 먹습니다。 술에는 집안에서맨드러먹는『테ㅅ』라는조선으로치면 감주가튼것이요『탈라』라고해서맥주가튼것도잇고『스라키』라고해서 지독스럽게 독한 소주도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배대신 이런술로 심심소일을 하는모양입니다

이외에독특한것이 잇습니다 이것은 에디오피아에 흔하고흔한 꿀(蜂蜜)과『궤손』이라는 식물(植物)로 맨든술인데 꿀이드러그런지 맛이 퍽조타합니다。 맛조흔바람에 이나라사람들은 이것을먹고 거리로 비틀거리기를 잘한다합니다。

각지추장의 근참제도

이나라는 황제의권력이 절대로 큰때문에 각지방에 지방장관이잇서서 백성들에게대한 생살의 권리를가지고잇스나 또한 그지방장관들은 황제에게 대해서 절대로 복종해야할 의무가 잇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녯날에 제후가 천자에게조공(朝貢)을 밧치드시이나라의 지방장관은 멧해만에한번식 황제에게 참근교대(參覲交待)를하지아니하면 안됩니다 이참근교대는 대개삼년에 한번식하는것인데 그때가되면 황제

◇커드는 에디오피아군사 사진은 에디오피아황제 하일 네셀리시에 일세께하

黑風 【148】
韓龍雲 作 / 金熊超 畫

광동(廣東) 4

『별로 다른말은 업스나 한가지일이 잇는데 서장을 친히 뵈옵고 말슴하는것이 조을듯 한데요』

하고 철수는 조금 주저하얏다

『무슨 말슴이든지 나에게 하야도 서장께 하나 마천가집니다。 아모말이라도 하시오』

하는 그는 철수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리라는것을 짐작하는 듯이 자기에게 하야도 관계업다는것을 자신잇게 말하얏다

『다른것이 아니라 내가 서장각하를 처음으로 뵈이려 오는대 빈손으로 오기가 어려워서 선사품을 조금 사가지고 오랴다가 일이 급하야서 물품을 사지못하고 돈으로 가지고 왓는데 돈으로 드리기가 미안하야서 추저하는중입니다』

『돈이 얼마나 된단말이오』

『변변치 안습니다 이백오십냥입니다』

하고 포켓트에서 돈뭉치를내어서 테블위에 노으면서

『미안하지마는 이것을 드려주시요 정으로 드리는것이니、그리하고 리충구라는 사람은 곳 노아주시도록 말슴하야주시오 아모죄도업는 사람입니다』

하고 철수는 그사람을 다시 본다

『우리 서장께서는 이런것을 도모지 밧지안하십니다 그러나 정으로 가저오셧다니까 갓다드려 보지오』

하고 그사람은 돈을 가지고 드러가더니 조금잇다가 나와서

『갓다 드리니까 당조에 밧지아니 합듸다 그래서 내가말슴을 만히하얏지오 그것은뇌물이아니고 정으로、가지고온것이니까 밧으서도 관계가업다고、그러하니까 마지못하야 밧으십듸다 그러고 충구의말슴을 하니까 서장께서도 충구는 죄가업는 사람이오 다만 외국에서 왓스니까 면마듸 무러보랴고 다려온것인대 당신께서 그의 장래를 보증이라도 한다니까 그저 돌녀보내겟다고 하시고 곳 충구를 노아보내라고경찰서로 전화하는것을 듯고 나왓슨즉 아마 충구는 발서 경찰서에서 나갓슬는지도 모를것이오 그러면 서장을 다시 뵈올것 업시 안심하고 도라가시오』

하는 그사람은 생각잇는 태도로 말을한다

철수는 그에게 감사한 뜻을 말하고 도라와서 그뜻을 황흥에게 보고하얏다

황흥은 철수의 보고를 듯고 먼저 웃고 나중에 탄식하얏다

『나도 그럴줄을 알고 보낸이하야 행한이지마는 지금의 관리라는것이 돈만먹으면 무어이든지 고만이니 그러고서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수가잇소 그러한일을 보는때마다 더욱이 혁명의 필요를 얼마나 늣기는지 모르는것이오 동지들은 아모쪼록 힘을 다하야 목적을 달하시오』

하는 황흥은 그러한 기회를 잡어서 부하를 격려하얏다

그러자 왕한은 여관주인으로부터 왕한이가 도라 왓다는전화를 밧게 되얏다 철수는 동지 두사람과 가티 왕한에게가서 위로한뒤에 황흥의 계책으로 돈을주고 경찰서장을 롱락하야 성공한일을 자세히 말하고 서로 우섯다 까닭을 모르고 부들녀갓다가 연고를 모르고 나온 왕한은 그제서야 자기가 혁명당원의 혐의로 부들녀갓다가 동지의 힘으로 나온것을 알게되야서 처음이 안심하게 되얏다

이튿날 왕한은 동지들을 따라서 본부에 갓다 황흥을 대하야 먼저 어제밤에 자기일로 수고한것을 사례하고 미국에잇는 지부의 사정을 자세히 보고한뒤에 황흥으로부터 혁명당전체의 사정과 기타 여러가지 의견을 드럿다

그날은 당에서 간부들을 모으고 왕한을 위하야 조그마한 환영회를 여럿는대 비밀운동이니만치 간단하고 조용 하야서 정과정을 말하는 이외에 다른 일이 업섯고 당의 규률도 술을 취하도록먹지는 아니하얏다

咸南山地帶에降雪 主要農作物이全滅

數年間거듭當하는凶作으로 罹災民의前途가憂慮

【咸興】함남산지대 장진군 신흥군(新興郡)에는 륙일오전 열한시부터 기온이 갑작히 내려 때우때아닌눈이나리기시작하여 동일오후일곱시경까지 오촌가량이나싸엿는데 전번십삼사량일간에 조랭으로 칠할이상의감수를 예상케하든 피해를 받든 중요농작물은 이번에 적설로인하여 거이 수확할것이 업는참상이라고 하며 특히 아직까지도 수확을 전연 못하고잇는대두 소두 속 피농작물은 근자 그대로의 전멸을 당하엿다는데 거듭 닥치오는 조랭(早冷)피해와 살을어이는듯한 흉한에 리재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궁려되엇다고한다

업친데덥치는格 豐山엔猛獸까지跋扈

農作被害面積七百餘町步에 二千餘石의減收豫想

【豐山】함남풍산(豐山)군은 금년도 함남농작지중에서도 가장 흉심한 참상을 입우고 잇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이런흉심한 흉작에 업친데덥치는격으로 맹수(猛獸)의출몰에 빈빈하여 만은피해를 밧고잇다고 하는데이제 함남도경찰부에 도달한 보고에 의하면 곰(熊)과노루(獐) 돗(猪)의 피해는 칠천백사십사단보에 이천사백삼십사석의 감수를 보인다고하는데 이맹수의 퇴치를 극히 독려하고잇스나군내의 총기가 겨우십오정 밧게 업슴으로 도저히 퇴치할수업슴으로 동군경찰서에서는 도보안과에 대하여 특별수렵허가를하여주기를 간원하엿다한다

面長運動하든 投書犯起訴 郡屬은免職

【大邱】대구부외 달성군논공면(達城郡論工面)은 종래부터 면장자리를 빼아스려고 면민간에 갈등 관청에 무서가 루루하이엇슴으로 대구경찰서는 상부의지휘로 무서용의자 수명을 검거하야 목하취조중이라함은 본보에 긔보한 바어니와 그후대구경찰서에서는 극비밀에 붓치고 용의자를 엄중히 취조한 결과 부정사실이 발각되여 대구지방법원검사국에 송치하야 정영(鄭永)검사가 취조하든바 오일긔소되여 공판에회부하엿다한다 문제의 중심인물은 논공면서긔 배홍안(裵洪安)인바 그는 면장에뜻을두고 각방면에 운동을개시하고서는 다른운동자에 대하야 도구군수에 허무맹랑한무근지설을 만들어 중상하는한편에 달성군 재근 군속 박곤옥(朴昆玉)(假名)에게 수백원을주어 맹렬히 운동하사실이 판명되는즉시로 박곤옥은 구월구일부로써 휴가면직처분을 당하엿다고한다

國境勞働會館竣工 —總工事費四萬餘圓— 七百勞働者의血晶

【新義州】신의주국경로동조합에서는 긔보와가티 칠백여로동조합원의 혈성을모아 금년사월부터 신의주매지정(梅枝町)에다가 공비사만원의 예산으로 대회관을 건축중이든바 금월오일 전부준공되여 새회관에서 집무를 하게되엿다 이집은 붉은련와제 이층양옥으로 건평총수가 이백열여섯평으로 국경상공에 오둑소사 국경의로동왕국을 상징하는감이잇다 이층홀에는 정원일천명의 대집회장을 맛들고 그엽흐로 로동자의 휴양실 오락실등이잇스며 아래스층에는 사무실과 소비부(消費部)의 사무실이잇고 그엽흐로는 로동자리발소가 부설되여잇는바 전조선을통하야 이와가티 굉대한 로동회관이 건축됨은 신의주가 처음일이라고한다

◇……竣工된國境勞働會館全景

延安水道工事 竣工式의盛況

【延安】연백군 연안읍내에는이해, 간선인 소성수도구(留成隧道口)에서 이십만호가 마실만한 생명수의 수원지를 어더노코연안면의 팔천호인구가 먹을수잇는 수량수도 공사를 재작년부터 일년간을두고 설계하야 공사비 구만원으로 작년구월일일부터 착공하야 금년오월이십오일에 완성이되엿든바 지난 륙일정오에 연안면 상수도공사준공식(延安面上水道工事竣工式)을 비봉산복정수장(飛鳳山腹淨水場)에서 성대히 거행하엿다고한다

大聖學校創立 十週年紀念式 發起會를組織

【安州】안주군동면 평률리(安州郡東面平栗里)에 잇는 사립대성학교(私立大聖學校)가 창립된지 벌서 십년의 풍상만는동시에교장 리관수(李寬洙)씨가 근속십주년의 풍울맛게되야 교육계의 은인인 그의 근속십주년 긔념과 동교 창립십주년 긔념축하회를 성대이하기위하야 지난사일 오전십시 면유지일동이 동교강당에 집합하야 십주년긔념발긔회를 조직하엿다는데 발긔인씨명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發起人氏名 金泰七 [illegible] 外十一名

蘇萊公立普校 改築期成運動

【仁川】경인선 간역의 발전은 실로 경이할만큼 대발전을보든중에도 소사(素砂)역은 실로 파천황의 긔세로 경인상업도로와 한가지로 대발전을 보이고 잇다 이에따라 재반 교육긔관도 도시화 하여야 할 형편임으로 동소래(蘇萊)공립보통학교에서는 개축긔성회를 조직하고 동회장 김재형(金在□)씨를 비롯하야사십회원의 열성으로 일반면민에게 오천원의 긔부금을 모집중이라는대 면민의 만흔 성원을 바란다한다

大仁川建設에따라 土幕民集中計畫 三千坪基地物色中

【仁川】대인천을 목표로 압강중 시설에 분망한인천부에서는 도산정(桃山町)좋한대운동장 공사와한가지로 부근주민삼백여토막민이 주택지를 일케되야 대수란을 당하고잇슴으로 인천계림자선회(鷄林慈善會)에서는 삼백토막민을 위하야 부당국에 수차 교섭중이든바 부윤은 동회간부에게 대하야 시내시외를 물론하고 삼천평긔지를 물색하야 줄것갓흐면 그를매입하야 토막주택지로 제공하리라한다는대 전하는바에 의하면 대인천 건설과 한가지 대도시체면을 유지키위하야 시내에 산재하야잇는 토막을 전부한장소로 집중케할이라한다

◇寫眞……(上)全朝鮮脚戲大會入賞者一同(元山)(下)各里對抗리레―에優勝한汶山軍(汶山)

薪炭採取禁止로 東面住民極困境

◇……唯一의生活資源을이러버려 玉蜀黍粥으로僅僅延命

【安州】평남 안주군 동면(安州郡 東面)일원은 본시평북 묘향산지맥이 흘러 산간지대가 다분이요 전야가 극소한지방으로 면민부처의 일년생활게랑을농작에서 밥분 산림에서채벌하는 화목(火木)과 신탄(薪炭)을 팔아 그의 밥분을 충당하야 겨우 생게를 하여오던바 근년산림령에 의하야 채벌이엄금되자 화목과 신탄채취가 격감되야 그들의 생활이 막연할으로 여름동안에는 강변에 호터저 사금을 캐여 다소의 생계를 도왓스나 날이 점점 치워오므로 그도 불여의 하되게엿스며 점점 닥처오는 엄동을 압두고 그들의 생도는 실로암담하다고하며 벌서부터 옥수수죽으로 겨우 연명하여가는 형편이라고 한다

作人頭上에또痛棒

正租檢查實施에따라 "섬"을叺으로박구라고 地主와對立抗爭

【春川】금년추수기부터 시행된 벼(稻)검사로인하여 벼생산자인 소작인(小作人)에게는 이전에업든 두통거리가생기엿다 긔왕에는 자긔가 생산한『벼집』으로지주에게주는벼집섬을맨들어사용하든것을 금년부터는 지주들로부터 판매의관계로 소작인에게가마니」사용을 요구케되여 소작인대중에게 적지안흔 리해관계가 파급케되엿다는바 긔왕부터 사용하든 벼섬과 금년부터 실시되는가마니」가일매식의 가격은 별로큰 차이는업다하나 소작인으로서는 자긔가추수한 벼집으로섬을 맨들든관계로 곤난이업섯스나 가마니로밥하면 무엇보다 긔계가업는 소작인들로써맨들수도업고 따라농촌에 아즉가마니 제조공장이 업는니만치어떤동리에 한두대의 긔계가잇슬뿐임으로 그것으로는 도저히만족치못할뿐아니라 현금을 주어도 살수가 업는 터임으로 할수업시 소작인들로서는 긔왕대로 사세부득 벼섬으로 소작료를 지주에게 너허 보내겟다고 주장하며 모모대지주측에서는 가마니를 다량으로 주문하여다가 소작인에게배부하고 가마니대금을 밧겟다고 주장하므로 입립부터 지주대 소작인간에는 지대문제거리가 되여잇다는데 지주들의 요구대로 한다면 소작인에게 적지안흔 비용이 들게되엿다하며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될것인지 주목중이라한다

貧農層을울리는 例의가을景氣!

◇……新穀나자米價가또暴落 每斗에四五十錢低下

【通川】렴가로팔고 고가로사먹는것은 농가에서 어찌할수업는 일이나 금년가티 쌀갑이 갑작이 폭락되는것은 처음이라고한다 매칠전까지도 백미한말에삼원이상을하든것이신곡(新穀)이나자 곡가는여지업시 폭락되여백미일두에 사오십전이 저락되여 일반농가에서는 농작물을 다파려도 금년에들사이에 사러간생활상부채도 환상지못하겟다고긔정이자심하다고한다

北鎭地方에 土地價格暴騰

【北鎭】발전도상에잇는 평북운산군 북진 지방에서는 근일토지시세와 가옥가격이 나날이폭등하는현상으로 시내 어듸를물론하고 작년만하여도 평당일원내외를 점하고잇든것이 일약이원오십전내지 삼원내외로 약삼배의 폭등을보이고잇스며 더욱 교외의 신시가지는 작년의 경지시절에 평당오십전 내외의것이일원내지 일원오십전 내외로 폭등되엿다 그리고 가옥가격도 상당한 폭등을보여 그반면에 일반세궁민층의 차가난이 실로 우심하여 그신음소리가 자못놉다한다

元山支後局援의 全朝鮮脚戲戰 一等은玄明鎬君

【元山】원산대원구락부(大元俱樂部)주최와 본보원산지국후원의 제사회 전조선각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사일부터 원산가축시장안에서 개최하얏는데 각지로부터 운집한 력사와 관중은 무려수천에 달하가운대에 첫날과 제이일에는 예선을 꼿내고 제삼일인 륙일부터 예선에든 일백팔십명의 준결승전에 들어갓섯는바 당일로 결승전에 들지못하고 의일이칠일에야 결승전에 들어가섯는데 제륙회전부터는 오파산승으로 승부를결하게되엿는바 더욱이 씨름루사로서 일홈이놉흔 함흥의리도남(李道南)쭘군 신포의 김항락(金恒洛)군의 씨름은 힘과 기술이 백중되여 한시간여에 긍하는격부가 나지안해서 수천관중은 현상까지 부치고 누가 승리할가를 가상을 조리며 보게쯤되여 관중의 시청은 두력사에게로 집중되엿섯는데 결국 김군의 승리에 도라가서 다년간 조선씨름계에 패왕을 점령하고잇든 리군도 할수업시 신진에게 석패되엿섯다 당일의 우승자는 다음과갓다

一等=玄明鎬(咸興) 二等=李成洙(洪原) 三等=金恒洛(新浦) 四等=李道南(咸興) 五等=朴興坤(咸興) 六等=朴榮浩(安邊)

各里對抗리레― 汶山軍이優勝

【汶山】본보문산지국주최의각리대항리레―와마라손은 레년과가티 문산공립보통학교 추긔운동회를 긔회로지난 오일에동교교정에서 개최하야 대성황을이루엇는바 그경과는 다음과갓다

◇各里對抗리레―優勝은 汶山軍

◇마라손― 一着 安永福 二着 鄭相福 三着 朴基昌

元山署管內傳染病 九個月間一六八名 —死亡者는二十八名—

【元山】지난일월로부터 구월말까지의 구개월간에 원산서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환자는 모다 백륙십팔명인데 그중사망자는 이십팔명이 되엿다 그중에 제일만흔것이 지부스로 륙십구명의 다수이고 다음이두창으로 삼십삼명 적리이십칠명 지푸테리 십팔명 성홍렬 십이명 파라지부쓰 사명 발진지부쓰 사명 노칙수막염 일명의순서이다

그런대 이것을 작년동긔에비해보면 휠씬증가된 현상인데 그중에도 지부스 두창이 가장 만히 증가되엿다고한다 이러케증가되는 원인은 원산의 인구가 증가된것과 경찰 에서 엄밀히 조사를 예년보다 잘한 탓이라고한다

全元山個人庭球 金、久成組優勝

【元山】원산체육회주최의 제오회 원산개인정구대회는 지난륙일 오전구시부터 영흥요사령부(永興司令部)코―트에서 참가팀이 삼사조의 출전하야 개최되얏는데 우승의 월계관은 김부안(金富安)구성(久成)조에 도라가다고한다

一胎三兒 딸둘아들하나

【海州】중앙의 어촌(漁村)부인이 한시에 세 자녀와 남자하나를 겸처삼태산(三胎産)을한 진긔한이야기― 자난사일오후 십일시경 해주군서변면용당리서해포(海州郡西邊面龍塘里西海浦)에 사는 방태한(方泰漢)의처 리선비(李善非)는 일시에 따님둘과 아들하나의삼태산(三胎産)을 하엿다는데 산모도 건강하거니와 산아도 별이상이 업다한다

平醫專의主催 陸上競技盛況 平高再次優勝

【平壤】평양의학전문주최(平壤醫學專門主催)제오회 서조선중등학교륙상경기대회는 칠일오전구시부터 동교운동장에서 련이차 평양고보군이 우승하엿다는데 대권을 획득하엿다는데 각가교의득점은 다음과갓다

平壤高普	一〇五·五點	一順
新義州高普	五八	二
平壤中學	四六	三
平壤商業	三二	四
光成高普	一三·五	五
鎭南浦商工	一二·五	六

線路의破壞로 列車脫線騷動 交通一時杜絶

【平壤】칠일오전사십분경 만포선(滿浦線)구장 자작간(球場—自作)에서 평양으로 오든 제팔백십구호 화물렬차가 진행하든중 선로상에 약팔십여가량의석이 문어저잇서서 정차중이든 화물차와 화차와 화차일량이 탈선하엿다 행이 전복은 면하엿스나 이로인하여 긔관차승무원 중촌상수(中村尙秀)(二○)와 수목리랑(水木利郞)(二○)등이 경상에 다상을닙엇고 교통이 불통되어 직과우편물은 도보로연락을 한다는데 복구되기에는 약멸시간은 요할모양이라한다

地方人事

▲增野貫吉氏(大田府內務課長兼庶務課長)新任人事次 大田支局來訪

▲坂田正治氏 同上

異次頓의死 【7】

李光洙 作 金奎澤 畵

이 때에 내전에서는 평양공주가 진골(眞骨―왕족)의 여러 처녀들을 불러서 또한 잔치를 배설하엿다. 이마로이소의 딸달님과 달님의 시녀 별님도 우멘나랏 입금의 딸이라는 자격으로 이런자리에 참예하는 허락을 밧는것이 전례엿다.

평양공주가 오늘 이처녀들을 모흔것은 표면으로 오늘 밤여섯마을(六村 또는 六府)여자들이대궐 마당에 모혀서 길삼내기를겨룰때에 진편에서 어떠한 음식을 차리고,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어떠한 춤을추고 또 어떠한 재미잇는 노리를 할까하는 의논을 하자는것이엇다. 이 노리는 유리입금(儒理王)때부터 생긴것으로 칠월 보름날부터 여숫마을 여자들을 두편에 갈라서삼삼끼를 시작하야 한가웃날 밤에 삼삼는것을 대결로 가지고 모혀들어서 어느편이 만히삼앗는가를 겨루어서 진편에서 술과 떡과 그 밧게 여러가지먹을것을 한턱 내이고 또 소리와 춤을 추어 즐기는것이다. 그런데 입금의 따님 두분이 각각 한편에 머리가 되는것인데 평양공주는 형제가 업스므로 해마다 한 사람씩 이날에 공주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법이어서 금년에는 이마로의 딸달님이 이 날에 공주대신을 하게된것이엇다.

표면은 이런 일을 의논하려 모인것이지마는 평양공주의 속에는 저와 이차돈과 혼인할것을 자랑하는것이 제일 목적이엇다. 어젯 밤에 입금은 사랑하는 외딸을 부르시와,

『너는 이차돈을 아는냐』

하고 웃으며 물으시엇다. 공주는 낫을 붉히며

『오늘 재주겨룸에 장원급제한 이차돈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신라나라에 어듸 잇스리이까』

하고 대답하엿다.

『그러치. 이차돈을 네 남편을 삼아서 래자로 봉하려하니 네 마음이 깃브냐』

하고 입금은 물으시엇다.

『녜 아바마마 분부대로 하겟습니다』

하엿다.

입금은 평양공주의 등을어루만지시고 웃으시엇다.

이 말을 들은 평양공주는 밤스동안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일우지못하엿다. 이차돈은 전에도 본 일이 잇지마는 어제 신궁압헤서 호랑이가튼 거칠아비를 따려눕히던 미목이 청수한 젊은 남자 이차돈의 슥슥하고 아름다운 풍채― 이것이 공주의 눈에서 떠러지지를 아니하엿다. 만일 입금이 먼저 말슴하심이 업스시면 공주는,

『이 몸은 이차돈이 아니면 시집을 아니가겟습니다』

하고 조를번하엿다.

입금은 평소에 공주의 손을 잡으시고는,

『너는 우리 나라에 제입 잘난 사람을 골라서 남편을 삼아줄것이다』

라고 노 말슴하시엇다. 공주는 이차돈이 신라나라에서 제일잘난 사람이라고 미덧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주가 여숫마을 처녀들을 내전으로 불러들인것이엇다.

오늘 밤에 술은 무슨 술, 떡은무슨떡, 거문고는 누구, 가야고는 누구, 비파는 누구, 대금은 누구, 중금은 누구, 소금은 누구, 회소(會蘇)노래는 누구, 춤은 누구누구 이러한 의논들이 업주꿋난 뒤에 공주는 참다못하야,

『인제 가욋노리 의논도 다끗낫스니 다른 이야기나 할까』

하엿다. 공주는 술과 흥분으로 낫치 벌거코 몸을 가만히 두지못하엿다. 달님, 별님 그 밧게 모든 처녀들은 공주의 입을 바라보앗다. 그들도다 술스김에 얼굴이 붉과하엿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라는지 누구나 알아마처보아. 못알아마치면 벌로 술 한 잔먹기고 공주는 웃으며 압에술 한잔을 따라노앗다. 다들 빙긋빙긋 웃기만 하고 말이 업섯다.

공주는 다시,

『내게 지금 큰 깃븜이 잇스니 그 깃븜이 무엇인가 알아맛처보아. 알아마치면 이 금가락지를주게』

하고 왼손에꼇던 금가락지를 빼어들엇다.

八日 (火曜)

◇午後六時 하―모니카(二重奏) 一、戴冠式行進曲…메이어빌作曲 二、로시안·왈스…金坡圖編曲 三、알젠틴·탕고…로버―트作曲 四、흑크만의뱃노래…오펜바크作曲 五、산듸에고왈스…宋一九作曲 六、피가로레·마―취…스―자作曲 七、蒙古式結婚舞曲…金坡圖編曲 金坡圖 宋一九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道心(一) 張義永

◇同七時三○分 常識講座 米食과小麥食과의榮養價値(一) 京專敎授 金浩植

◇同八時 鄕律 聚山會像 玄琴 李彥禮 洋琴 李承德 奚琴 崔龍九 短簫 洪斗香 細笛 高載德 杖鼓 李章夏

◇同八時三○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박타령 丁南希 鼓手 丁元燮

◇同九時 連續古談 麗末秘話(一) 庾秋岡

九日 (水曜)

◇午後○時五分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노들江邊 三、방아타령 四、오돌독이 五、靑春歌 姜梅紅 細笛 姜學洙 奚琴 李忠善

◇同○時四○分 뉴―스

◇同三時一五分 常識講座 幼稚園의來歷 申殷雨

◇同六時 흘라이트獨奏 一、봄은사라진(露西亞民謠) 二、그대夢想幸福되거라…포옴·데렐作曲 三、로빈아다이어(스콧트랜드民謠) 四、먼―옛날(愛蘭民謠) 李海□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道心(二) 張義永

◇同七時三○分 常識講座 米食과小麥食과의榮養價値(二) 金浩植

◇同八時 (東)피아노와管絃樂 (상사―○誕生百年祭) 一、講演 二、管絃樂을爲한組曲 三、아프리카(피아노와管絃樂) 四、交響詩『페―트만』 新交響樂團 피아노 高木東六 講演과指揮 山田耕作

◇同八時五○分 漫談 黃材景

◇同九時一五分 時調와짝타령 一、時調 二、지름 三、짝타령 李文源

十日 (木曜)

◇午後○時五分 (東) 木管콘사―트

◇同三時一五分 家庭講座 主婦의任務 朴正淑

◇同四時 뉴―스

◇同六時 童話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常識講座 貨幣의歷史 許然

◇同七時三○分 法律講座 法律로본人身

◇同八時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孔明歌 四、山念佛 五、노래가락

◇同八時三○分 映畵이야기 激流 朴昌達

◇同九時 歌詞 一、白鷗詞 二、黃鷄詞 金花香 李月色 大笒 金永根

曆

十月九日(水) 舊九月丙戌(小)十二日 戊午·火·參·成

弱한身體는視力도弱하다 近眼된사람이 漸漸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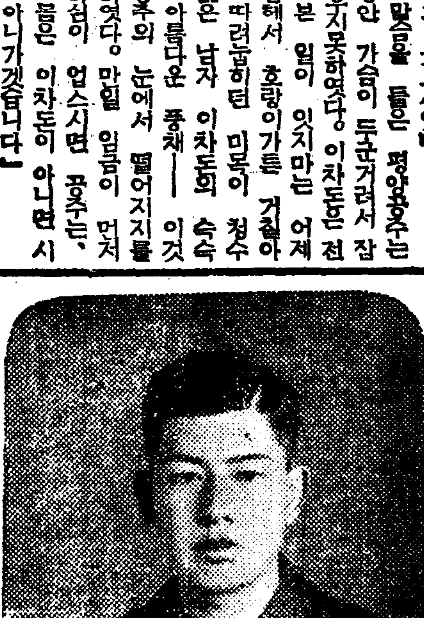
身體의基礎를强케하면 頭腦가明晢하고眼力이强케됨

文部省의最近의統計에依하면全國高等、專門學校의學生에、近視眼이、意外로、加速度的으로增加하야서、大學生에至하야난半數以上이 되되고 大新聞은社說을揭才하고 對策을講論하도록大問題가되야잇지만、그原因은過度의工夫와、敎科書參考書辭書等이無制限으로

細字가되야서視力을過勞하는故로 體質이病弱한 學生이 눈의疲勞 視力의衰弱 때문에 近視眼이 된다고한다 또 成人의遠視眼이라도 亦然함으로 身體의 基礎가 弱한까닭으로 眼力도 弱하고 老眼으로 始作되야 早老者처럼되는故로、總히身體가弱한 人은 先히 視神經의 疲勞를兆朕로하야 全般神經의 衰弱을 招致하고 頭腦가(둔)하고 身體가(노곤)하고 조름이오고元氣가업고 수저 수저한

落伍者가되니누구든지몬저第一로 身體의基礎를强케할거시 根本이된다 身體가 强해지면第一먼저눈기게되는것은 視力이 分明케 되는故로 따라서 腦力도 明晰하고 能率이 增進하고 胃腸의活動도 活潑하고 如何든지 튼튼한 身體로된다

根氣를强케하고疲勞倦怠치안코何時든지 元氣發潮하야 滋味잇게視事가增進되니그러함에는滋養强壯劑에 養命酒처럼 조흔것은 업다고 感心하야 口口好評으로 高名하다 누구든지 早速히體驗을………



身體가튼튼하게 根氣를增進하고 눈에疲勞가업서젓다

愛知縣 [illegible] 作治

前略容恕하야주시요、나는 엇전지、身體가弱하야、조곰만、無理를하면、곳 머리가 괴롭고身體가困하고 밤에는 잠을못자서언제든지 조름이오는것처럼 눈에힘업고 身體는漸漸衰弱하야 事物을못이저서 記憶力이업소 엇지하면 튼튼이되가 各種實驗을 사서먹어도아무런效果가업소 힘지新聞廣告를보고 養命酒가잇슴을알고먹어보든지 매우맛도조코 요전지身體에 生氣가나는듯하얏슴니다 精神하야먹는中에、身體가차次튼튼하고、밤에는、잠을잘자고야氣分이조와지고、根氣도增加하고、記憶力도잘되고、눈이疲勞치도안케되얏습니다、이것이다養命酒의德이라고합니다、爲先謝禮兼通知합(昭和十年七月十五日付 寫眞은本人)

小瓶進呈

貴 [illegible] 養命酒試飲用小瓶一本을 無料로贈呈 [illegible]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 養命酒本舖出張所 [illegible]

滋養强壯劑로……

◆胃腸衰弱한분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根氣薄弱한사람 ◆不眠숨갑분사람 ◆呼吸器弱한사람 ◆疲勞倦怠한사람 ◆貧血冷病잇는분 ◆虛弱體質가진분 ◆産前産後의婦人 ◆病後恢復期 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鹽澤家傳 養命酒 製法日米專賣特許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음

注意 가짜가잇스니 專賣特許의名 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 하시고사시옵

[illegible] 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 [illegible]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illegible]

移入貿易의月額 最高記錄을示現

—大宗인米移出激減으로— 移出貿易은不振

九月中의 朝鮮의 移出入 貿易은 移出二千四百三十七萬千圓、移入五千百七十萬五千圓으로서 前年同月에比하야 移出은 八百十八萬四千圓의 激減、移入은 一千二十六萬八千圓의 大激增이엇는바 그 原因은 移出은 魚油를 비롯하야 生絲、銅、肥料、金鑛石及 小麥等의 諸品이 大槪 出荷好調를 呈하얏스나 大宗인 米는 一千三百三十四萬八千圓(五十八萬一千石) 大豆는 四十四萬餘圓이 激減된 때문에 大減退를 告한 一方 移入은 鐵材、米、機械類、絹織物、肥料、小麥粉、棉花及同其他 諸雜貨等의 入荷가 好調이엇슴으로 移入額은 過去의 最高位를 示하얏다。그리하야 九月의 入超가 二千七百三十二萬八千圓으로 前年九月에 比하면 一千八百四十五萬三千圓의 驚異的大增加로 三倍强의 入超로서 移出入貿易의 注目을 繼續이엇다。

◇九月中移出入貿易槪算額

	九月 今年	前年	增減(△)	一月以降累計 今年	前年	增減(△)
移出	二四、三七一	三二、五五五	△八、一八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入	五一、七〇五	[illegible]	一〇、二六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入超	二七、三三二	[illegible]	一八、四五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出重要品價額 九月

品名	今年	前年
米(數量石)	[illegible]	[illegible]
小麥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品名	本年	前年
鮮魚介	[illegible]	[illegible]
乾海苔	[illegible]	[illegible]
牛皮	[illegible]	[illegible]
魚油	[illegible]	[illegible]
生絲	[illegible]	[illegible]
黑鉛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金鑛	[illegible]	[illegible]
鐵鑛	[illegible]	[illegible]
銅	[illegible]	[illegible]
牛	[illegible]	[illegible]
洋紙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海藻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其他諸品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品名	本年	前年
米及正租(數量石)	[illegible]	[illegible]
小麥粉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淸酒	[illegible]	[illegible]
麥酒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綿織絲	[illegible]	[illegible]
安全燐寸	[illegible]	[illegible]
生金巾及生細布	[illegible]	[illegible]
晒金巾及晒細布	[illegible]	[illegible]
白木綿	[illegible]	[illegible]
진스	[illegible]	[illegible]
太綾布	[illegible]	[illegible]
綿繻子	[illegible]	[illegible]
麻布	[illegible]	[illegible]
綿織物其他	[illegible]	[illegible]
毛織物	[illegible]	[illegible]
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洋紙	[illegible]	[illegible]
其他紙類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세멘트	[illegible]	[illegible]
陶磁器	[illegible]	[illegible]
鐵條及竿	[illegible]	[illegible]
레ー루	[illegible]	[illegible]
鐵板	[illegible]	[illegible]
鐵葉鐵板	[illegible]	[illegible]
鐵管及管	[illegible]	[illegible]
釘類	[illegible]	[illegible]
機械類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其他諸品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移出入港別概算額 九月

港別	移出	移入
仁川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雄基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illegible]	[illegible]
羅州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時機를놋친拂下의 成績不良함은當然

政府所有朝鮮米二回賣却 豫定數量의三分一

政府所有 朝鮮米 十四萬七千五百石의 拂下落札決定은 結局 五萬三千六百三十六石八斗로서 依然 成績이 不良하얏는데 政府所有 朝鮮米는 朝鮮內에서 拂下하야달나는 要望이 만헛섯든바 이 要望대로 朝鮮內에서 拂下는 하얏다하나 朝鮮內 在米가 乏하야 糯米不足으로 米價가 暴騰되엇슬때에 拂下를 하여야 米穀統制의 根本精神에도 맛고 朝鮮內 米穀需給事情도 알어주는것이 겟는데 요사이가티 新米出盛期이오 米價가 反落되는지금에 朝鮮內에서 拂下하야도 不成績일것은 當然한일로 拂下時期를 놋친 農省에 對하야 批難이 잇는모양이다。

賣殘米九萬餘石

農省서移入、隨時賣却

【東京電話電通】朝鮮米第二回賣却成績은 豫定數量 十四萬七千五百石에對하야 五萬三千六百石으로 今回도 成績이不良하얏는데 農林省에서는 賣殘米 約九萬四千石에 對하야서는 第三回賣却을 行치안코 近間 適當한時機에 日本內地에 移入하야 隨時賣却을 行할方針이라한다。

朝鮮米賣却成績

【東京電話電通】農林省發表 昭和十年十月 農林省告示 第三百三十二號에依하야 實施한 政府所有朝鮮米(豫定數量十四萬七千五百石)의 賣却成績은左記와갓다

◆賣却場所 群山 賣却米種類 朝鮮玄米 賣却數量 三六七八八
◆賣却場所 京城 賣却米種類 朝鮮玄米 賣却數量 一六八四八、八
合計 五三六三六、八

新米出廻旺盛 二旬이일다

仁川鎭南浦로부터 滿船狀態로移出

新米의 日本內地移出은 九月以來의好順氣와 十月一日부터 實施된 正租檢査制에 農家가 玄白化量 急히한 等의關係로 例年보다 約二旬이 일러 十月四五日부터 鎭南浦、仁川으로부터 京濱에向하야 每船 六千石 乃至一萬石식 거의滿船狀態로 移出되어 米價가 顯高인關係上 農家가 賣急하고잇다한다

米買上申込數量

公定價에依한것

【東京電話聯合】農林省發表=五日 公定價格에 依하야 米買上申込數量은 如左하다

東京	四、四五〇俵
仙臺	二〇〇
金澤	一六〇
熊本	七五〇
合計	五、五六〇 / 一一、二二四石
累計	三八八、四二八 / 一五五、三七一石二斗

京城商議立候補 屆出者二十二名

京城商議議員 立候補 八日朝까지의 屆出은 벌서 廿二名에 達하얏는바 未屆者로 出馬確定的인者를 加하면 結局 一級은 十八名으로 定員超過三名、二級은 十二名으로 아직 定員數에 三名의 不足인바 氏名은 如左하다

◆屆出(一級) 鄭賢康二(再) 藤田米三郎(再) 河合治三郎(再) 高居浦三郎(再) 山本正三(再) 賀田直治(再) 二宮淸一(再) 田川常治郎(前) 李東善(再) 戶島祐次郎(再) 內山寬正(再) 松浦齊生(再)
◆未屆出(一級) 渡邊勘次(再) 田中三郎(再) 藤貞市(再) 元悳常(再) 朴永根(再) 堀直喜(新)
◆屆出(二級) 松田淸(再) 渡邊儀一(再) 伊藤壽一(再) 關根金作(再) 成明信(再) 植山仲次郎(再) 梅澤友七(新) 藤井寬一(新) 張鶴慶(新) 孫完榮(新)
◆未屆出(二級) 田村作郎(再) 吉岡定次郎(再)
그리고 右外古市町靑木商會靑木鷸司氏(新)도 出馬는 確定的이다

米棉의躍騰으로 棉花共販好影響

一等棉每斤十八錢臺

時局關係로 棉花市況의 强調를 伴하야 棉花共販은 米棉六十二圓臺躍進에依하야 一等棉斤十八錢臺로 昂騰되엇다。昨年의 高價에 達할것가튼데 今年은例의 運賃紛糾로 棉運賃도 木浦阪神間 四圓十錢이 三圓으로 低落되엇스므로 共販에 好影響을 齋來코잇다 한다

滿洲八月對外貿易

【新京七日發聯合】滿洲國財政部는 八月中의 對外貿易槪況에對하야 如左히 發表하얏다 (單位國幣圓)

輸出	二七、三三一、七五〇
輸入	四七、九四九、三三七
合計	七五、二八一、〇八七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輸出三百八十四萬三千二百九十九圓 輸入三百十七萬四千八百六十一圓 合計七百一萬八千百六十一圓이 各히 減少하얏는데 各國別은 如左하다

日本內地와朝鮮	四七、七五六、八〇六
中國	六、四四七、六九九
蘇聯邦	二六七、四四七
香港	六六五、七三二
英領印度	四二、六一七
英國	二、九五〇、五八三
佛蘭西	二二三、九二二
獨逸	五、九八一、五三三
白耳義	三四一、七〇六
和蘭	四九九、七二二
伊太利	五四〇、四四〇
米國	一、六九一、九八五
其他	七、五六二、九七四

組銀米倉에서 賀田氏를推選

京城組合銀行 朝銀、米倉會社에서는 加藤朝鮮銀行總裁의 希望에 依하야 今回의商議改選에는 現會頭賀田直治氏를 共同推選키로 되엇다

運賃六十三圓 七日協定成立

西朝鮮—名古屋

丸ナ、丸仁、菱ク의 三協會와 名古屋朝鮮米移入商間에 締結된 新積取協定은 昨報와如히 阪標準運賃을 前回보다 五圓引下하야 割戾를 五圓五十錢으로 改定하얏슴을 機會로 阪仁標準보다 八圓高인 六十三圓에 五十錢의 割戾附로 七日에 協定이 成立되엇다

收繭減原因

品種改良이主因 繭種政策再檢討?

오래간만의 絲價昂騰의 好環境에處하면서도 今年의 變態天候로 夏秋繭의出廻는 掃立의順調에도 不拘하고 前年比四割의 激減을 豫想되는狀況을 惹起하야 原料難에 陷痛中인 製絲界의 一大脅威가되어잇는바 이 夏秋繭의 不成績의原因은 勿論 稀有의 變態氣候도 主因이나 有力한原因으로 新獎勵品種을 全朝鮮的으로 普及식힌데 原因한것을 이지음判明하야 朝鮮蠶業政策上 再檢討를要하는 重大問題로되어잇다 卽 從來朝鮮內의 獎勵蠶種은 日中交雜種이엇든바 右는 舊品種으로 製絲製品이 輸出規格에 適應치안코 收繭量도또한 적음으로 新品種으로 支持面 支歡種을 日本內地로부터 移入하야 昭和九年及 今年度의 新品種으로 全朝鮮的으로 普及하얏는데 右新品種은 全南北과 如한 適地에서는 稀有의 好成績을 내일수잇섯스나 亂히 風土、氣候에 影響되는바가 만허 幼稚한 朝鮮內의 養蠶技術과 桑葉의 缺陷으로서는 飼育이 困難하야 今夏秋蠶과 如한 變態氣候에 逢着하면 膿病 其他를 發生하야 全滅을 招來하야 今年과 如한 掃立에도 不拘하고 收繭四割減과如한 慘狀을 惹起하는것이다 이는 朝鮮內의 養蠶實情의 程度無視의 高級蠶種飼育의 失敗를 明瞭히 말하야주는것으로 朝鮮內에서는 適地適種의 選擇을 要하는 實例라할것이며 蠶種政策은 이實驗으로 再檢討를 要하게되엇다

朝鮮穀物大會

明年은咸興서

朝鮮穀物協會聯合會의 次回大會는 七日에 丸元으로부터 明秋 咸南咸興에서 開催할터이며 聯合會에 通知하얏다한다

鑛業權取消는 軍需鑛業에만

適用할方針이라고

鑛山熱昂揚에 隨伴한 鑛區利權者에 對하야 벌서부터 總督府에서는 鑛業令第二十九條의 規定에依하야 鑛區設定後 事業着手를 하지안는者에 對하야 斷乎 鑛業權取消處分의 方針을 明白히하고 右에 關한 調査를進行하고잇는바 實際問題로 特定鑛區權取消는 法의 運用上에잇서서도 問題가잇고 特히 金鑛과如한 小資本이라도 着手할수잇는것은 右實效가업슴으로 大體로 右取消處分에 對하야서는 金鑛을 例外로하고 主로軍需用鑛物資源、鐵鑛、니켈、텅구스텐等을相當히 資本을要하고 開發에 國策的重要性을 帶하고잇는것에 適用할 方針이다

今日財界(八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 京取三等米新三石 [illegible] /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 一斤價在來 [illegible] / ◆市中金融 貸出 [illegible] 預金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무現 [illegible]

對伊制裁?

今後形勢注視

錢、大新 九十七圓四十錢、新新 十二圓七十錢、三十圓九十錢에 反高잇後 底堅調에 大引

戰爭이 擴大되지 안코리라하야 漠然한 期待買의 整理에入한市勢는 伊代表의 新提案文手交로 一層不擴大人氣를 誘致하얏는바 對伊經濟制裁를 九日聯盟總會에서 採擇할것이냐 아니냐가 目前의 큰話目거리이다 經濟的制裁는 疑問이오 軍事的制裁는 忘想이라하며 佛蘭西는 經濟封鎖에 反對한다하니 對伊制裁란 有名無實로도보이며 伊首相「무솔리니」氏가 突然 新和協案을 提示하야 一層戰爭市勢를 解消식힐意이잇서 今前場은 東新 百五十七圓臺 大新九十六圓臺、日產八十二圓臺로 不勢이엇다。

一時的反動低

戰爭을떠나서도 危險性업는市勢

戰爭問題는 一時에 解決될것이 아닌즉 依然 今後擴勢를 透視할必要가 잇스며 擴大되지안는다고 반드시 市勢를 根本的으로 惡化식힐것이 아니다「못솔리니」伊首相이 新和協案을 提出하얏다하니 이로써 伊「에」戰爭이 終熄되고 歐洲戰爭은 夢想이 되고말것이라고 簡單히 볼수업는터이즉 좀더 今後 形勢를 注目하여야 할것으로서 지금의 反動低는 一時的의것이고 株界大勢는 戰爭을 떠나서라도 實勢好轉에 準據한것인以上 또는 自重하는以上 決코 市勢自體에 危險味가 업다는말이잇다

後場不勢

後場은 [illegible] 十八錢에 三十圓 [illegible] 後다시 漸落하야 五節〇八錢에 떠러지고 別欄가티 止場하다

底不知의形勢

步一步로軟弱

本年六月부터 本月上旬에 入하기까지 强勢를 繼續하야 實方의全滅狀態를 呈하든것이 日本內地米作 第一回豫想이 六千五十萬石이 意外豐饒임을 機로하야 軟派의雪辱戰이 展開된모양인데 此에 政府米百萬石拂下說까지 加味하야 實로 高價에서 百七十丁의 瓦落을 告하엿다 此에서 又復 續落을 告할지몰으나 軟派의 觀測하는바에 依하면 日本內地米作 第二回豫想은 言必稱 百五十萬石 乃至 二百萬石의 減收量을 見할것으로 主張하나 그러나 其實은 第一回豫想調査를 마친後의 米作被害가 僅少하야 二三十萬石減收에 不過할것으로 六千萬石臺는 足히 維持할수잇고 又는 朝鮮米의 第二回豫想은 第一回보다 오히려 增收될 傾向이 多하다고 結局 相場은 期待할餘地가 업다고한다 果然 米價의大勢는 四圍의事情이 當分

拂下數量注目

果然百萬石?

米의 拂下成否과 또는 新米의 出廻潤澤으로 反落하기가 十常八九일것으로 本月初旬의 二十九圓七十錢의 天井은 到底히 恢復하지못할모양이다。果如何? 政府는 目下端境期의 需給不安을 緩和케하기爲하야 今日米穀統制委員會를 開하고 新古米의百萬石을 買替하기로 決定하기로되엿다。果然 百萬石을 一時에 全部拂下하게될지 又는 豫期의石數보다 少量으로 할지 此에 注目되는바이며 그리고 新米의 買上은 何時에 實現하게될지 此가 또한 問題인데 拂下의石數가 百萬石程度로 된다하면 此에서 又復 一落을 告하기가 十常八九일것이오 萬一 小量의 拂下를 하는때는 흑이혀 反騰을 招來하지안흘가한다 何如間

商況 [八日]

株式 再落後에 反戾

前場再落 昨後場下落反戾인뒤를 이어 今前場은 米日爲替反騰이나「스일」四圍四分三으로 昂高、米棉高、棉絲强調의 好材料에 不拘코 伊代表의 新提案文書交로 戰爭不擴大人氣가 再起하야 再落不勢이엇스나 卽 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一圓五十錢低인 百五十七圓七十錢、日產一圓低인 八十二圓七十錢、大新八十錢低인 九十六圓九十錢、鐘新五十錢低인 三十圓八十錢에 各大引되고 折新十二圓四五十錢이엇다。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反高 後場은 東新百五十八圓八十錢、日產八十三圓 [illegible]

朝取今期配當

一割三分確實

朝取의 十月七日까지의 手數料收入은 期米十四萬一千四百七十五圓 株式八萬四千六百九圓 合計二十二萬六千八十四圓으로 前期中의 總收入에 比하야 期米는 七千餘圓 株式은 九萬三千五百圓 合計 十萬圓强의 收入增加를 示하야 今後 約二個月間의 收入을 前年同率로 보드래도 約一割八分의 株主配當이 可能한 好成績인바 여러가지 事情으로 配當은 年五分의 增配로 結局 年一割三分程度의 配當이 될 模樣이라 한다

▲東新과日產

東新은 純投機株로서 戰爭市勢의 人氣的役割을 太半終了코나서 反動低이거니와 日產은 銅高景氣로 近日頑强步調이며 東新低에도 鈍態인바 日產은 人氣만 付하면 東新以上으로 熱狂하는性質이 잇는株인만큼 日產의 六分利廻 百圓市勢를 當然타고 보는 사람이 잇섯다

期米 頹勢不止 續落

前場續落 昨後場 阪地三十圓二十一錢止와 共히 二十八圓二十三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圓三十三錢인 七丁高를 報하고 二十八圓三十二錢인 一丁高를 繼하얏스나 後阪地는 ○九錢으로 二十六錢까지 續落하엿는가 十六錢에 止場引後 二十八圓丁으로 二十五錢까지 反騰하다가 結局 十五錢에 場을 止하엿다。

市場所感

株 戰爭不擴大 形勢로 反動低에 入한市勢가 一層低落▲對伊 經濟制裁를 九日 聯盟總會에서 果然採擇할가? 注目▲九月中旬은 歐洲大戰을 後想코 熱狂하더니 伊「에」開戰이 實現되고 보니 戰爭不擴大로 投出賣込 擴大안되리라고 보는 戰局이 歐洲大戰으로 되지말라는法도업스니 이번賣込의 反動이 크게 나오지나 안흘가?▲要는 外電一本에 左右되는 市勢이라 누가 今後를 斷言할수 잇스랴만은▲戰爭이란 것을 떠나서 株界自體로 본 今後는 어떠할것이냐가 問題▲大勢上 格別히 悲觀할것이 업다는것보다도 樂觀거리가 相當하니▲卽 戰爭이 短時日에 終熄된다드래도 이번 伊에 戰爭이 機會되어 世界的 軍擴에 拍車를 加케 될것이오 國內材料로도 市勢를 根本的으로 惡化식힐 거리가 업는듯하니 市勢를 危險性잇는것으로 볼수업는것만은 事實인 모양▲人氣市勢가 一段落되고 實質市勢로 入한바 沈默을 깨친 歐洲平和가 平靜을 期키 어려운限 日本의 立場은 人氣市勢가 後見하야 一致되어갈것이오 日本事業界에 餘惠를 齋來하리라는點에 期待를 가지고서 對處함이 若何?

米 連日 續落을 告하든 市勢는 今朝에 又復 一落을 告하더니 俄然十餘丁反撥로 幾分底堅味를 添하다▲實로 阪地市勢의 步調는 十丁良도 업시 一直線으로 百丁의 反落을 告하더니 今朝에 約二十丁反撥▲此反撥이 頹勢를 防止하는 關이 업지아니하나 아즉도 餘勢는 軟弱▲今日에 開催되는 米統委員會에서 百萬石買替를 하게되다고 果然百萬石을 如實히 拂下?▲百萬石을 如實히 拂下하는때는 又復一段을 可期▲此에 反하야 拂下하는石數가 豫想보다 少量으로 끗치면 도리혀 反撥되기가 十常八九▲何如間 高價에서 阪仁共히 百七十丁이나 反落하엿스니 相場律에依하야 一反撥도 잇슬만도 當然▲그럿치만 本月初旬의 二十九圓七十錢은 本年의 第二天井으로 볼수잇다그럼으로 어느 程度까지 返戾하는때는 狙賣하는것이 得策일 模樣▲本年內에는 新米의 出廻와 共히 軟弱相에서 繼返하다가 年後부터 昻騰할 것으로 누구나 觀測

各地正米

堂島前場情報【大阪電】(賣) 地場中東側、正米側、小口來客側의 賣氣投 (買) 神戶側、株式側、地場利喰

京城不變 拂下米에 壓迫되어 實方無氣이오 無實買狀態로 終始하얏다 丸仁三等三十圓十錢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二十錢

仁川保合 正租 檢査施行의 關係로 實物이 比較的적으나 本內地에 實况이 鈍하고 定期低와 相保하야 續市況不振이오 閑散裡에 保合인 丸仁三等新米三十圓十錢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釜山續落 期米의 不勢로 買氣업고 [illegible]

群山修落 [illegible] 市勢는 更히 五十五錢大下落을 告하얏다 丸〃四等二十九圓七十錢 五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四圓丁

木浦閑散 拂下米의 落札과 新米出廻로 壓迫이잇고 當用側에少量의 取引이잇섯다 新米丸木多摩三等三十一圓三十錢 古米丸木三等三十圓九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町三等三十圓四十錢 四等三十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大邱不勢 期米低이나마 拂下實에 密迫되어 下商에빠져 實物商이오 下落氣味인 角ヶ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政府米의拂下는 需給의 不安을 一掃하게될모양이오 [illegible]「모도리」가 잇다할지라도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七 電話長九一六 一六九三 一二六五

朝取取引員 金仁梧商店 玉 期米 株式 電話 [illegible]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아세아商事株式會社 京城府大門通二ノ一 日生ビル一·二階 電話本局 二四九四 七七八六 [illegible]

金銀 高價買入 殖金商會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七 電話本局四五八〇番

市況表 (八日)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正米◆ ◆海外經濟◆ ◆東京金利◆ ◆京城手形交換◆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大阪綿絲◆ ◆日本麥粉市勢◆ ◆外米期米◆ ◆鰯油冲價◆ ◆鰯搾粕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東京短期◆ ◆京取短期◆ ◆朝取期米◆ ◆大阪期米◆ ◆日本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綿絲◆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